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81호

Wednesday, August 7, 2024 A

해리스 러닝메이트 월즈, “강성진보” 60대 백인

민주당 강세인 미네소타 주지사
무상급식·유급휴가 확대 등 정책 퍼
한국과도 인연, 부친 6·25 참전용사
“백인 노동자·농민 등 공약 효과적”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오른쪽)의 러닝메이트로 낙점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최근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 밴스를 뺀 ‘트럼프는 기괴해’ 캠페인을 이끈 주인공이다. 보수적 성향의 농촌지역인 미네소타를 지역구로 뒀다. [AP·AFP=연합뉴스]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오른쪽)의 러닝메이트로 낙점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최근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 밴스를 뺀 ‘트럼프는 기괴해’ 캠페인을 이끈 주인공이다. 보수적 성향의 농촌지역인 미네소타를 지역구로 뒀다. [AP·AF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59) 부통령은 대선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60)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했다고 CNN과 AP·로이터통신 등 현지 매체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 러닝메이트로 유색 인종 여성 대통령 후보(카말라 해리스)와 백인 남성 부통령 후보(팀 월즈)라는 전례 없는 조합이 탄생했다. 11월 미국 대선은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팀 월즈대(對)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대통령 후보)-JD 밴스(부통령 후보) 간 대결로 대진표가 확정됐다.

월즈 주지사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미네소타주 남부 지역이 정치적 기반이며 진보 색채가 짙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백인 노동자·농민 유권자 공약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

코는 “농촌 지역의 일부 민주당원에게 캘리포니아 출신 대선 후보(카말라 해리스)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런 배경에서 월즈 주지사가 해리스의 보완재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오하이오주 흡수제’ 출신으로 시련과 역경을 딛고 성공 스토리를 쓴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의 대항마로도 효

과적이라는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즈 주지사는 재선의 제41대 미네소타 주지사다. 2006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미네소타 제1선거구)에서 처음 당선된 뒤 내리 6선에 성공했고, 이후 미네소타 주지사에 두 차례 당선됐다. 그는 지난달 23일 MS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을 겨냥해 “이 사람들은 정말 기괴하다(weird)”고 한 뒤 민주당에서 ‘트럼프는 기괴해’ 캠페인이 유행하면서 부통령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일요일인 지난 4일 워싱턴 DC 자택에서 팀 월즈 주지사를 비롯해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 등 3명과 심층 대면 면접을 진행했다. 월즈 주지사는 이 중 가장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지사 재임 중 학생에 대한 보편적 무상급식, 여성 생식의 자유(낙태 선택권) 보호, 투표권 강화, 중산층 세금 감면, 근로자 유급휴가 확대,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등 다수의 좌파 정책을 밀어붙였다. 주지사 직무 수행 모토가 ‘미네소타를 미국에서 가족 부양하기 가장 좋은 주(州)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전날 저녁까지도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고, 이날 오전에야 팀 월즈 주지사로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 10면 ‘해리스’ 로 이어집니다

VA 페어팩스 카운티 “분리수거 한국식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의무화 추진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쓰레기 배출량을 현재보다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는 현재 매립 혹은 소각 쓰레기 총량의 9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engage.fairfaxcounty.gov/zerowastesurvey)를 진행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트 카드 100달러를 증정한다. 설문 조사는 오는 9월30일까지 진행된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작년 한해 120만톤의 쓰레기를 배출했다.

이같은 쓰레기는 타이슨스 쇼 핑몰 내부와 주차장 빌딩을 두번 채우고도 남을 양이다.

김욱재 기자

▶ 5면 ‘분리수거’ 로 이어집니다

뉴욕증시 안정 되찾아...S&P 500·나스닥 1% 상승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어닥쳤던 공포심리가 수그러들면서 6일 미국 뉴욕증시가 반등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4.39포인트(0.76%) 오른 38,997.66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3.70포인트(1.04%) 오른 5,240.0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6.77포인트(1.03%) 오른 16,366.85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앞서 전날

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특히 전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2.6%, 3.0% 떨어지며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엔비디아(3.78%), 메타(3.86%) 등 일부 주주 대형 기술주는 이날 3%대 상승률을 보이며 지수 반등을 견인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의 긴축 개시로 일본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 외국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의 ‘캐리 트레이드’ 투자 비중이 정지되기 시작한 게 일본증시 폭락을 가속하는

주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파로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의 아린담 산달야 글로벌 외환전략 공동수석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투기적 자본에 한 정해 볼 때 캐리 트레이드의 되돌림은 50~60% 정도 이뤄진 상황”이라며 캐리 트레이드 청산 지속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팔의 도전, 이게 올림픽 브라질의 브루나 알렉산드르(오른쪽)가 6일(한국시간) 여자 탁구 단체 16강전에서 한국의 신유빈을 향해 서브를 하고 있다. 어린 시절 오른팔을 잃은 알렉산드르는 왼손에 든 탁구 라켓으로 공을 높이 띄운 뒤 다시 왼팔을 휘둘러 공을 네트 건너편으로 넘긴다. 알렉산드르를 앞세운 브라질 여자 탁구팀은 한국 대표팀에 매치 점수 3-1로 패했지만, 관중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 관계기사 14면

[뉴시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아가 플랜지링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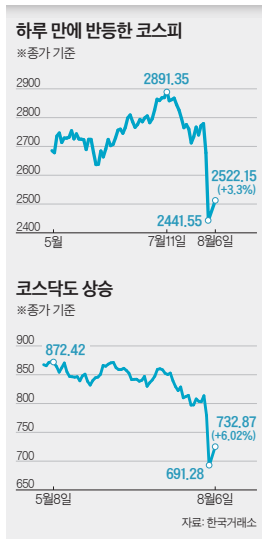
410-480-0083

Fed “미국 경기침체 단정 일러”... 시장 “9월 금리 빅컷해야”

(0.5%P 인하)

경기침체 우려, 엇갈린 전망

정부, R 공포에 “아시아 과도한 반응”
폴 크루그먼 “경제, 확실히 침체 직전”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6일 80.60포인트(3.3%) 오른 2522.15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뉴시스]

국내 증시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6일 국내 증시는 전날 '검은 월요일' 대폭락에 맞선 반발 매수세가 거셌다.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주식을 싸게 사들이려는 투자자의 매수 주문이 과열 양상을 보면서 양쪽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최근 증시 폭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미국발 경기침체 가능성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저렴한 엔화로 사들인 미국 성장주 등을 되파는 현상)으로 인한 자금일탈 우려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0.60포인트(3.3%) 오른 2522.15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1,590포인트(6.02%) 뚝 732.87에 장을 마쳤다. 전날 8.7% 떨어진 코스피 시장과 11.3% 폭락한 코스닥 시장엔 장 초반부터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11분까지 5분간 두 시장 현물 전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 매수호가를 5분간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20년 6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용지표 하나로 변진 침체 공포로 증시가 폭락한 건 굉장히 이례적 사례라 반등할 수밖에 없었다”며 “게다가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7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반등세가 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금이 증시에 몰리고 있다. 전날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하자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약금은 하루

아시아 주요 증시
단위: %, 자료: 블룸버그 ※전 거래일 대비 6일 증가 기준

코스피	+3.30	한국
코스닥	+6.02	한국
닛케이	+10.23	일본

만에 6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약금은 지난 5일 59조 4876억원을 기록해 전 거래일인 2일 대비 5조 6197억원 증가했다. 투자자 예약금이 59조원대를 기록한 건 올해 초(1월 2일)와 4월 1일 이후 처음이다. 투자자 예약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돈이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하면서 폭락했다. 인공지능(AI) 거품론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 관측도 주가 급락을 부채질했다.

일본이 지난달 31일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화 가치가 높아지자 투자자들이 그동안 저렴한 엔화로 산 해외자산을 대거 되팔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투자은행 도이체방크는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 등을 토대로 1990년대 이후 누적이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가 20조 달러(약 2경75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급락은 경기침체 우려보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영향이 더욱 컸다”며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 입장에서 주가 급락이 일본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완화하기 어려워 엔화 추가감세는 일단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 우려에 국내 증시가 출렁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증시 폭락에 대해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에 있다”며 “대의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한 거시

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에서다.

미국에선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연방준비제도(Fed) 인사가 “침체를 단정 짓기엔 시기상조”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미국 산업구조에서 비중이 큰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침체 우려가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9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적정 인하 폭에 대한 논쟁은 심화하고 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연)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지표가 기대보다 약하게 나왔지만 아직 경기 침체 상황으로는 보지는 않는다”며 “만일 고용이나 물가 등 경제 여건이 악화한다면 Fed가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기준 2.8%를 나타내는 등 건조한 상황에서 고용 지표 하나만으로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는 선부르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Fed가 한 박자 빠른 인하에 나서야 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경제가 확실히 침체 직전으로 보인다”며 실업률이 지속해서 오를 점 등을 들었다. 그는 “Fed가 7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9월에는 0.5%포인트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배정원·오호정 기자, 세종=이우림 기자

닛케이 10%·대만 가권 3.4% 상승 아시아, 블랙먼데이 하루만에 반등

닛케이 3217P ↑ 사상 최대폭 올라

대만 TSMC 8% 상승, 지수 견인

“반등 계속될지 의구심” 경계론도

전날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초토화됐던 아시아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당분간 작은 이슈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이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일본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17포인트(10.2%) 급등한 3만 4675에 장을 마쳤다. 전날 4451포인트

(12.4%) 폭락했던 닛케이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급반등했고,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니혼게이아이신문은 “엔화가 약세 전환됐고, 낙폭 과다 인식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대만 가권(자취안)지수도 이날 전 거래일보다 670.14포인트(3.38%) 상승한 2만501.02로 마감했다. 특히 지수의 30%가량을 차지하는 TSMC가 7.98% 상승했다. 이에 앞서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033.99

포인트(2.6%) 하락했다. S&P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각각 3%, 3.43% 떨어졌다. 급락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낙폭을 줄였다.

전날 밤에 발표된 미국의 서비스지수 지표가 경기침체 우려를 누그러뜨리면서 시장을 진정시켰다는 평가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하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7월 51.4로 전월(48.8)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될 것이라고 보는 업계 관계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향후 세계 증시 전망은 엇갈린다. 당장은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가 과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예컨대 7월 고용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위기 신호로 보기엔 무리란 분석이다. 해고가 늘어 실업률이 올라야 경기가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간 일을 안 하던 사람이 고용시장으로 진입했다. 일시적으로 노동 공급이 늘어 고용지표가 악화했다는 주장이다. 블룸버그는 “과잉 반응을 자제해야 한다”며 “지난해 초 은행 실적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내려갔지만,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지면서 주가는 빠르게 회복됐다”고 전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주가가 내리는 모습은 아니다”며 “미국을 포함해 일본과 한국 증시에 버블이 끼어 있었다. 버블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의 불안정한 가격변동이 이어진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니혼게이아이신문은 “외부 환경의 불투명성으로 주가 반등이 지속될지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날 반등은) 시장이 낙관으로 기운 것이 아니며, 주가 급락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곽재민 기자

워싱턴 날씨 (°F)

8일(목)	79-75	9일(금)	82-73	10일(토)	86-67	11일(일)	86-65	12일(월)	87-66	13일(화)	86-68
-------	-------	-------	-------	--------	-------	--------	-------	--------	-------	--------	-------

8월 7일(수) 82~71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위,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정 \$660,000
재개발/부동산/임대/투자

SOLD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대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SUPER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바이어도 주택 매매 커미션 내야 하나?

SPECIAL STORY

14일부터 바뀐 규정 시행으로 “한인 고객, 업계 종사자들도 혼란”

오는 14일부터 주택리스팅서비스 업체 MLS에 바이어 에이전트에 대한 커미션 액수를 기입할 수 없게 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연합회(NAR)의 규정 변경으로 MLS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올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바이어 에이전트가 셀러로부터 리스팅 커미션을 받지 못한다면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주

야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바이어는 자신이 고용한 에이전트와 독립적으로 커미션 계약을 맺어야 한다.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서는 주택매매시 셀러의 에이전트는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MLS에 등재하는데,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 비율 등도 포함했었다. 이같은 행위는 부동산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었다.

전국부동산중개인연합회(NAR)는 작년 독점금지소송을 당했는데, 법원은 이같은 관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행상 셀러가 셀러와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모두 부담해 왔으나 이같은 행위가 주택매매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야기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MLS는 이 판결의 영향으로 14일부터 바이어 에이전트에 대한 커미션 비율을 공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인해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불할 책임

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현재의 관행이 완전히 붕괴돼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불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관행이 법률처럼 굳어져 셀러가 모든 매매 비용 부담 책임을 지는 것이 시장자율을 해친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하지만 한인 에이전트 박모씨는 “모든 것이 시장의 자율에 맡겨진 만큼,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커미션을 주겠다고 할 수도 있으며, 아예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계약 조항에 넣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복수 오피가 흔한 셀러마켓에서는 셀러가 바이어 커미션을 전혀 주지 않

아도 된다. 주택 구매가 시급한 바이어라면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스스로 커미션을 지급하는 에이전트 고용 계약을 작성할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셀러는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커미션을 약속할 수도 있다.

한인 에이전트 김모씨는 “주택 대금 20%를 다운페이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요즘에는 3% 다운페이 융자 프로그램도 있다”면서 “바이어 커미션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 아직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지만, 시장 흐름에 따라 또다른 관행이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재 기자

‘한미동맹 기여’ 이견수 회장, 국민훈장 수훈

이견수(82·사진) 동아일렉콤 회장이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과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을 지원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이견수 회장

6일 국가보훈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이 회장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한미동맹재단 명예이사장, 육군협회 부회장 등을 지내면서 유엔군 기념사업과 상이군경 지원, 지역사회 공헌 등에 지금까지 수백억원을 기

부했다. 특히 주한미군전우회 지원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참전용사 기념비 설립, 텍사스 한국전 기념비 건립을 후원했다. 성악가 조수미 음반을 참전 용사에게 선물하는 등 문화 교류에도 힘써왔다. 평안북도 신의주가 고향인 이 회장은 공산당의 살해 위협에 가족과 함께 월남했다. 학군단(ROTC) 2기 출신으로 최전방에서 복무하기도 했다.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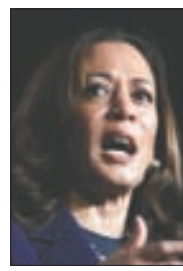
에서 무역업을 하다가 귀국, 1980년대부터 통신 시스템 회사인 동아일렉콤을 경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평소 “한·미 동맹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달 11일 KBS교향악단 제5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KBS교향악단 측은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이 이사장의 경영 철학이 교향악단이 새롭게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VA 남성이 해리스 살해 예고” 해리스 부통령 협박범 체포

연방법무부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버지니아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버지니아서부 연방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용의자 프랭크 칼리오(66세, VA 윈체스터 거주)는 최근 ‘joemadarats!’이라는 유저네임으로 19차례에 걸쳐 해리스 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자신의 거주 주택에서 체포됐다.

그가 작성한 글에는 “만약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총으로 살해한 후 집계를 이용해 눈알을 뽑아낼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나는 AR-15 자동소총을 장전한 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방당국은 용의자의 자택에서 AR-15 소총과 권총, 그리고 수천발의 탄환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용의자는 지난 2월에 AR-15 소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연방법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승계 순위에 들어가는 부통령과 연

방부처 장관에 대해 협박을 할 경우 최대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용의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선언을 한 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자 이같은 협박 메시지를 작성했다.

용의자가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 ‘Gettr’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비밀경호국(SS)은 7월13일 트럼프 전 대통령 저격 사건을 계기로 유력 대선 주자 협박범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종 극단적인 사이트를 통해 암살에 대한 신념을 표출하는 이들이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박세용 기자

5달러에 이 번호 있으면 2000달러 이상 받는다

1100만장 중 1장 희소가치

‘B55555555C’ 등과 같이 동일한 일련번호가 적힌 5달러 지폐가 2000달러 이상에 판매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NBC는 지난 5일 개인금융 전문 업체 더페니호더를 이용해 동일한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는 지폐는 1100만 장 중의 1장 있을 정도로 희소가치가 높다고 전했다.

일례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베이에 일련번호 ‘CF7777777B’(사진)가 새겨진 5달러 지폐가 2896달러의 판매가에 등록돼 있다. 또 틱톡의 한 인플루언서가 소유한 일련번호 ‘G88888888A’의 지폐는 지난해 경매가 2040달러에 낙찰된 바 있다. 현재 시장에는 5달러 지폐 약 8억2600만장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재선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장에 관한 일은 선택 - 오니에게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The Centers for Advanced Orthopaedics
The Orthopaedic Foot & Ankle Center

김창용 발 전문병원

발이 아프시면, 이제 김창용 발 & 발목 전문의에게 맡겨 주십시오!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 이 발이 불편한 것을 그냥 참거나 넘기지 마세요. 발이 불편하시면 일단 거동이 어렵게 되고, 생활이 불편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이 아프거나 불편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 개인에게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 당뇨병 발 관리
- 발 및 발목 골절
- 망치 발가락
- 당뇨 신발
- 상처 치료
- 건막류
- 기능성 발 보조기
- 족저근막염
- 사마귀 및 궤양
- 관절염

족부의학 전문의
Dr. Chang Yong Kim D.P.M.

Dr. 김창용 원장

- Kent State University, College of Podiatric Medicine
- Podiatric Surgery Residency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Wound Care Fellowship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Certified
- Hyperbaric Medicine Team Training Course Certification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예약 문의 **703.394.4818** 통역 서비스 제공
www.footankledc.com

2922 Telestar Court, Falls Church, VA 22042 / 1550 Wilson Blvd, Suite 105, Arlington, VA 22209

선거판 불문을 깨졌다 한인 대신 비한인 지지

존 이 시의원, 곤잘레스 지지
한인사회 암묵적 약속 사라져
‘자질 우선 vs 표심 집결’ 찬반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간의 불문이 깨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인들의 각계 정치권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한인 간의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암묵적 약속이 사실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

가장 비근한 일례로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가주 하원 54지구에서 LA시 존 이(John Lee·사진) 시의원(12지구)이 3주 전 민주당 마크 곤잘레스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무소속인 이 시의원이 한인 존 이(John Yi) 후보 대신 이 후보 경쟁자인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후보는 당내 지지기반이 비교적 취약했지만 예산에서 1만4947표를 얻어 득표율 34%를 기록하면서 45%를 얻은 곤잘레스 후보에게 위협적인 경쟁 상대로 자리 매김했다.

소속 정당은 달라도 한인 후보들이 더 많이 정치권에 진출하도록 하는 공감대는 1990년대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을 필두로 1세대 중심의 선출직 진출이 이뤄지던 시절부터 당원시 되어왔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어바인시를 중심으로 한인사회 정치력이 급부상하면서 더 공고해졌다. 당시 최석호, 강석희 등 주요 후보들은 당내의 압력에도 당파성을 이유로 한인 후보들과 맞선 후보들을 공개지지하거나 나서서 한인 후보를 깎아내리는 활동을 극도로 자제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한인 후보들의 경쟁 상대의 지지자 목록에서는 다른 한인 정객들의 이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가주 상원 37지구에 도전하는 최석호 후보는 연방 하원에 출마한 데이브 민의 경쟁자인 스킷 보 후보 지지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민 후보 역시 최 후보의 경쟁자인 조시 뉴먼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공개적으로 지지 성명을 내지는 않았다.

한인들이 한인 후보의 경쟁자를 지지하는 상황은 LA시의회 10지구, 주 상원, 연방하원 등 다른 선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인들의 의견은 엇갈

리고 있다.

한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인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억측이라는 주장도 있다.

LA시의 한인 관계자는 “소수계로서 한인 표심을 집결해 한인 정치인을 한명이라도 더 배출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공감하지만 ‘우리가 남이냐’라는 논리에 함몰되면 위험한 측면도 있다”면서 “한인이지만 공복(public servant)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면 타후보를 지지해야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공개적으로 한인인과 경쟁하는 후보들을 지지하는 것은 한인 사회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 활동에 참여해온 한 원로는 “진영 논리만큼이나 커뮤니티 자체 정치력 확대는 모든 소수계가 속세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 한인 후보들의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찬반 의견을 떠나 정치권의 전면에서 2세대들이 나서면서 한인 표심의 결속력은 사실상 계속 저하하고 있다. 커뮤니티 색채는 더욱 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은 “이런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아 아쉽다”며 “한편으로는 2세대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 1세대들이 소중히 여겼던 단결력을 강조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는 점도 이해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K 커피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속도

할리스·이디야·빽다방·메가MGC 등 커피·음료·디저트류 등 다양한 메뉴 달고나라예 등 현지 특화 메뉴 인기



한국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

최근 전 세계에서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해외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커피뿐만 아니라 음료, 디저트류 등 다양한 메뉴를 앞세우고 현지 시장에 맞는 특화 메뉴를 선보이면서 소비자 입맛 공략에 나서고 있다.

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할리스는 지난 5월 일본 오사카에 첫 해외 매장인 난바 마루이점을 열었다. 할리스는 일본 20~30대 사이에서 한국식 카페와 디저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일본에 매장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매장에서는 국내 판매 메뉴뿐 아니라 ‘약과 크림라떼’, ‘행운이 썩썩라떼’ 등 한정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할리스 관계자는 “전통 디저트를 활용한 약과 크림라떼의 판매는 아메리카노의 1.5배”라며 “이 메뉴가 난바 마루이점의 대표 메뉴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디야커피는 작년 12월 광에 해외 첫 가맹점을 연 데 이어 연내 3호점까지 낸다는 방침이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팝 1호점에서 국내 판매 메뉴뿐 아니라 현지 특화 메뉴를 제공하면서 관광객, 현지인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며 “특히 달고나라예, 봉어빵 등 한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메뉴가 인기”라고 말했다.

이디야커피는 지난 6월에는 말레이

시아 현지 파트너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연내 현지에 3개 매장을 열기로 했다. 또 5년 내 말레이시아에서 200호점까지 내는 것이 목표다.

이디야커피는 매장 출점 외에 스틱커피, 음료 등을 미국, 홍콩 등 23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지난해 제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120% 늘었다”고 설명했다.

방송인자 사업가인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인 빽다방은 현재 필리핀에 8개, 싱가포르에 2개 매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빽다방 역시 현지에서 인기 요인으로 ‘다양한 구성’을 꼽았다.

회사 관계자는 “과일 음료,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한국에서 판매하는 메뉴를 현지화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MGC커피는 지난 5월 3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첫 해외 매장을 열었다. 또 아시아권, 미주 등으로 진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커피뿐 아

니라 에이드, 프라페 등 150개 이상의 메뉴가 있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소비자 성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식업계는 한류 열풍 속에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의 해외 매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할리스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K-푸드는 맛과 영양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에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른 것도 업계의 해외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국내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커피 프랜차이즈도 해외시장에 관심을 많이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2022년 말 기준 10만729개로, 처음으로 10만 개를 넘었다. 이는 2016년 5만1551개에서 6년 새 두 배에 이른다.

50만불 목표, 한인사회 지원 절실

그레이스 유 후보 기자회견
유권자 홍보에 150명 필요
8일 정치력신장위 후원행사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 많은 후원과 자원봉사가 절실합니다.”

오는 11월 LA시 10지구 시의원 본선거를 앞두고 그레이스 유 후보가 한인 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유 후보는 5일 한인타운 올림픽길 소재 캠프사무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그동안의 현황 보고와 더불어 일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유 후보는 “지난 마지막 기금모금 보고에서 상대 후보보다 두 배 많은 액수를 보고했다”며 “여전히 쉽지 않은 싸움이 되고 있으며 한인사회의 강력한

지원이 없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LA시 윤리위원회 보고 내역에 따르면 3월 예산 이후 유 후보 캠프는 6월 30일까지 총 모금액 16만1000달러를 보고했으며 경쟁중인 헤더 허트 후보는 8만2500달러를 보고했다.

캠프 측은 본선을 위한 최종 모금액 목표를 50만 달러로 잡고 있으며 여기에 시정부의 매칭 기금이 20만 달러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캠프 진영은 평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2~8시에 일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남녀노소 상관없이 조그만 일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주로 지역구 내 유권자들에게 홍보 업무를 진행할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5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LA시 10지구 시의원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가운데)가 5일 오전 회견을 열고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모금과 자원봉사를 독려했다. 유 후보와 캠프 인사들이 최근 모금된 기금을 소개하며 감사 표시하고 있다.

며 향후 3개월 동안 적어도 150여명 정도 인력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오는 8일(목) 정오 미주정치력신장위원회 주최로 유 후보 후원 모금행사가 LA한인타운의 카페 콘체르토에서 열린다.

글·사진=최인성 기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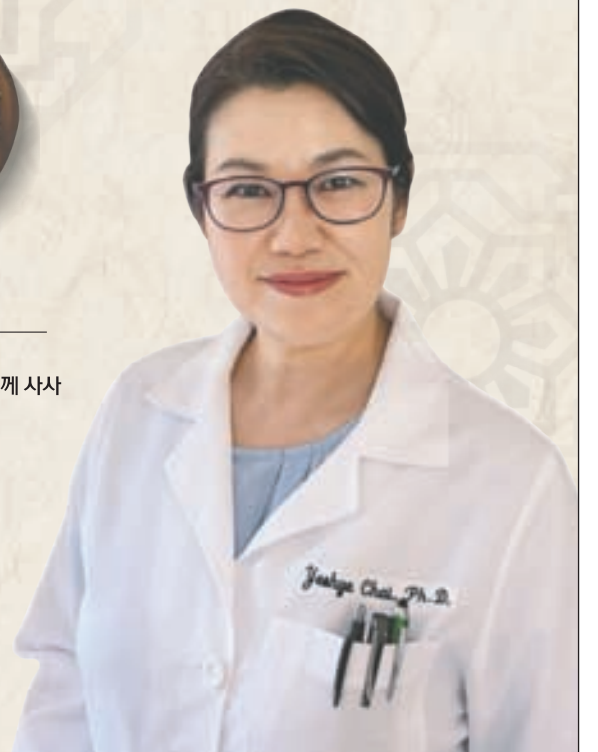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의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험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간호사 왕진으로 추가 수입”

**WSJ, 보험사들 메디케어 청구
지난 3년간 150억달러 받아내**

보험사들이 간호사들의 왕진으로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일 ‘간호사의 1시간 왕진으로 보험사가 메디케어에서 150억 달러를 받아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환자 집에서 수집한 정보로 추가 지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보험사가 매년 수백만회에 걸쳐 간호사들이 메디케어 수혜자 집을 방문해 검사, 검진 등을 하고 있으나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사가 연방 정부로부터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진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WSJ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왕진에 나서는 간호사들에게 선별 검사 실시와 특이한 진단을 추가하도록 압력을 가해 2019~2021년 사이 1시간 왕진당 1818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다. 또한 메디케어 데이터 분석결과 이 같은 추가 비용이 약 15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왕진당 징수한 메디케어

평균 비용을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유니타드헬스(UH)가 2735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휴머니 1525달러, CVS/에트나 232달러 순이었다.

3년간 UH가 왕진으로 거둬들인 총 액수는 107억 달러로 나머지 보험사들이 징수한 46억 달러의 두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UH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셸리 맨키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6차례 왕진에 나섰으며 휴대용 검사장치로 말초동맥질환 검사를 실시해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가 메디케어로부터 연간 2500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맨키는 직접 자가검사를 통해 다양한 결과가 나오에 따라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검사장지에 대한 신뢰성에 우려를 제기했으나 보험사는 데이터가 검사를 뒷받침한다며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에 나선 다른 간호사들은 말초동맥질환 등 왕진에서 나온 진단 중 다수가 “보험사가 권장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진단이며 많은 케이스가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왕진 후 추가된 진단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왕진서 진단된 70만 건 이상의 말초동맥질환 케이스로 보험사들은 18억 달러를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추가 진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왕진의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콜센터를 통해 왕진을 권장하는 전화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월마트 상품권 같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같은 기간 보험사들이 왕진과 같이 의사나 병원에서 진료하지 않은 진단케이스로 받아낸 비용이 거의 5억 달러에 달하며 보험사가 주도한 다수의 진단이 잘못됐거나 의심스럽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의회 자문기관 메디케어지불자문위원회는 왕진서 발생한 진단은 메디케어 보험사에 대한 추가 지불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어이드 서비스센터의 대변인도 최근 진단 검증을 위한 감사를 강화했으며 말초동맥질환을 포함해 추가된 진단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고공행진하던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셀러들은 거래 둔화에 호가를 낮추는 등 주택 시장이 조정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 주택 앞에 계약 진행 중이라는 팻말이 내걸렸다. [로이테]

성수기에 주택시장 묘한 양상 가격 내린 매물 2년 내 최다

호가·오퍼 가격도 모두 떨어져

수년간 상승곡선을 그리던 집값이 모처럼 꺾였다. 주택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호가도 내려가는 추세다.

리얼터닷컴의 월별 주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전국 중간 주택 가격은 전월의 44만5000달러에서 5050달러 내린 43만9950달러였다.

셀러가 가격을 인하한 매물 비중도 전년 대비 3.4% 증가한 18.9%를 기록했다. 이는 2년 만에 최고치로 팬데믹 이전 보다는 높은 수치다.

전국 50개 대도시 중 47곳이 지난해 7월에 비해 호가가 내려간 매물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지역은 플로리다 탬파(9.7%), 노스캐롤라이나 샬럿(9.5%), 애리조나 피닉스(9.4%)다.

랄프 맥라플린 리얼터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금리가 예상보다 높고 가을 금리 인하 전망에

바이어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셀러들이 바이어 유치를 위해 호가를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맥스 타운앤컨트리 부동산의 브루스 아일리온 변호사는 “리스팅 매물이 늘어나고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증가하면서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며 “일부 셀러는 내린 호가보다 3~5% 낮은 가격으로 오퍼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7월 매물이 리스팅에 머문 기간은 5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일이 더 길다. 셀러가 가격을 낮추고 모기지 금리가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예비 주택구매자들이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이 내려가고 셀러 호가 매물이 증가하는 것은 주택 시장이 조정기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은영 기자**

개 있다.

현재 추세라면 2040년 인구와 주택, 기업 등은 평균 15% 이상 증가하게 되며 쓰레기 배출량도 비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에서는 분리수거 의무화 법률을 제정해 특정 기준 이하로 분리수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욱제 기자**

▶ 1면 ‘분리수거’에서 이어집니다

카운티 정부는 전체 쓰레기의 44%를 재활용하고 있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분리수거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싱글하우스 30만 1천채, 타운하우스와 콘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만1천채, 각종 기업 3만2천

김은미 기자

반려동물 특수영양제 ‘세종후코팻’ 출시

GMP마크, 항종양 효과까지



세종바이오테크가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견 등을 위한 특수영양제 세종후코팻을 출시했다.

세종바이오테크는 지난 16년간 세종송보감, 세종후코이단, 세종기관지정보감, 세종뇌보감, 세종관절보감 등 최고의 천연소재로 건강기능식품을 연구 개발하여 미국과 한국에 공급해 온 업체다.

이번에 출시한 세종후코팻은 항종양 효과, 시력건강, 관절건강 등에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바이오테크는 “세종후코팻은 단순한 사료나 간식이 아닌 특수영양제로 개발됐다”고 강조했다.

세종후코팻은 분말 형태로 제조돼

하루 1스푼 섭취, 1개월 분량 단위로 포장돼 있으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거쳐 GMP 마크를 달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반려동물 특수영양제 세종후코팻에는 후코이단, 발베리 추출물,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아르기닌 성분은 주성분으로 포함하고 있어 2세 이상 반려견에게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보이는데, 사료와 함께 하루 1번 섭취 시 3대 영양(면역, 관절, 시력)을 만족시키고 항종양 효과와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은 반려동물이 거부감이 없도록 먹을 수 있도록 사과향을 담고 있다. 가격은 1개월분 1팩에 45달러.

문의 : 703 256 7671. www.sejongbiopet.us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의 돌인 마이클 장

맞춤형의 돌인 마이클 장
맞춤형의 돌인 마이클 장
맞춤형의 돌인 마이클 장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역조림)
웨이리노래방
300m 뉴타운홈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이스라엘·헤즈볼라 “긴장속 폭격”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6일 폭격을 주고받았다.

지난달 31일 하마스 일인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테헤란에서 암살되고 이에 대해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긴장이 첨예해졌지만 양 측은 무력 충돌을 피하지 않았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가 주둔한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와 키암 지역을 공습했다.

레바논 보안 소식통은 이날 헤즈볼라 전투원 6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의 군사 목표물을 겨냥해 다수의 무인기(드론)를 발사했으며 이를 요격하려던 이스라엘군 미사일이 목표물을 빗나가 나하리아 마을에 떨어져 이스라엘인 여럿이 다쳤다.

헤즈볼라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공격이 지난달 30일 이스라엘의 폭격에 숨진 푸아드 슈크르 사령관과 관련된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공습

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또 “5일부터 제닌 등 요르단강 서안 일대에서 드론 공습 등 군사작전을 벌여 테러리스트 11명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날 제닌과 투바스 지역에서 총 12명이 숨졌다고 집계했다.

이날 예루살렘 인근 검문소에서 이스라엘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팔레스타인인이 현장에서 사살되기도 했다.

트럼프 “월즈, 약하고 위험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결정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처럼 너무 진보적이라고 비판했다.

브라이언 휴스 캠프 선임고문은 6일 성명에서 “카말라 해리스는 팀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함으로써 급진 좌파에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진보적이고 약하며 실패한 자신의 의제 추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월즈는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산 에너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우리 국경에 대한 침공을 계속 방조하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며, 세계가 3차 대전 직전인 상황에서 우리 적들을 대담하게 만드는 데 고무도장(rubberstamp)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무도장은 앞서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을 비판할 때 쓴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결정을 맹목적으로 승인하고 추종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를 “실패했고 약하며 위험할 정도로 진보적”이라고 비난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캐럴라인 리비트 선거캠프 전국 대변인은 성명에서 월즈 주지사가 해리스 부통령 같은 캘리포니아표 진보주의자가 되려고 한다면서 “팀 월즈는 카말라 해리스처럼 위험한 진보 극단주의자이며 해리스-월즈의 캘리포니아 드림은 모든 미국인의 악몽이다”라고 주장했다.

러 “우크라이나, 지난달 군행사서 푸틴 암살 기도 있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6일 주장했다.

러시아 매체 렌타에 따르면 라브코프 차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1에서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과 벨로우소프 장관이 참석한 러시아 해군의 날 기념행사를 틈 타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해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벨로우소프 장관과 함께 군함 퍼레이드를 참관했다.

라브코프 차관은 벨로우소프 장관



지난달 28일 러시아 해군의 날 행사 참석한 푸틴 대통령.

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화해 우크라이나가 이런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라고 촉구했으며 확전을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6일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 벨

로우소프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스틴 장관에게 전화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려는 ‘비밀 작전’에 대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또 미 국방부가 그러한 작전을 알지 못했으며 벨로우소프 장관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크라이나에 연락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수행하지 말라고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라브코프 차관은 지난달 31일 타스 통신 인터뷰에서 당시 벨로우소프 장관이 오스틴 장관에게 우크라이나의 작전이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확전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고 말했다.

“하니에 피살 관련 체포된 사람 없어”

이란 사법부는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의 암살과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란 ISNA통신에 따르면 아스카르 자한기르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6일 “오늘까지 하니에 암살 사건과 관련해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며 “사람들이 체포됐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란은 검찰청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 소속으로, 사법부가 중대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 이란 당국이 정보 당국자와 군 간부 등 20여명을 하니에 암살과 관련해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혁명수비대의 정보부대가 암살 사건 연루자를 추적하면서 경호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자한기르 대변인은 암살 사건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는 국제기구를 통해 미국을 제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란은 테헤란에서 하니에가 암살된 일에 용감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나라 안팎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이란 수도 테헤란 시내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신임 대통령이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와 손잡고 있는 모습이 담긴 대형 간판이 설치된 모습.

이란은 하니에 피살 경위에 대해서도 서방 보도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혁명수비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하니에가 머물던 숙소 외부에서 7kg 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발사체가 날아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지난 1일 NYT는 하니에 피살 약 2개월 전 숙소에 폭탄이 설치됐으며 하니에가 방에 들어간 후 이것이 원격 조정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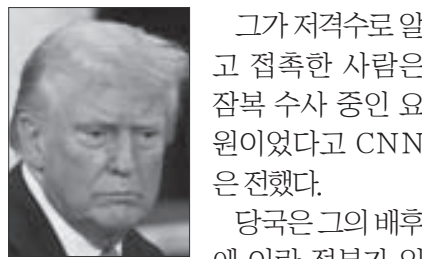
지난 2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스라엘이 혁명수비대 소속 부대원들을 포섭해 폭탄을 설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암살 사주 혐의 이란 연계 파키스탄인 기소

법무부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현직 미국 관리들에 대한 암살을 사주한 혐의로 이란 정부와 연계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들을 기소했다.

6일 CNN 방송에 따르면 뉴욕 연방 검찰은 파키스탄 국적의 46세 남성 아시프 메르찬트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관리들에 대한 암살 시도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달 12일 저격수와 접촉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모의한 뒤 미국을 떠나려던 메르찬트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저격수로 알고 접촉한 사람은 잠복 수사 중인 요원이었다고 CNN은 전했다.

당국은 그의 배후에 이란 정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그러나 지난달 13일 펜실베이니아 유세 도중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방아쇠를 당긴 총격범 매슈 크룩스와 메르찬트의 어떤 접촉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직후 미국 언론들은 당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란의 암살 첩보를 입수하고 경호 수준을 높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보 당국은 그동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 지휘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살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현직 고위 관리들에 대한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 지휘관이었던 솔레이마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인 지난 2020년 1월 3일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미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제 79주년

광복절 8.15 행사

8.15 해방의 기쁨과 슬픔의 산증거인 어르신들 행사에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2024년 8월 15일(목) 오전 10시

장소: 아가페 노인복지센터
6349 Lincolnia Rd, Alexandria, VA 22312

문의: 202-258-6384
후원 : 사임당 소사이어티 회장 장세희

한미 수교 142주년 기념

후원 및 독거노인 삼계탕 행사 결산보고

2024. 7. 15

수입		금액
1. 한미수교 142주년 행사 결산보고 잔액		\$405
2. 염상득 (한사랑 가요동우회 회장)		\$200
합계		\$605
지출		금액
1. 삼계탕 30명분 영수증 참조		\$523.68
2. 결산보고 광고		\$150
합계		\$673
총 수입 \$605 - 총 지출 \$673 = - \$68(회장지불)		

알림: 미주한인재단 공사관 매입 모금 \$83,502 중, 한국문화재청 매입 담당자 한종수씨에게 \$80,000 전달. 차액 \$3,502을 동포사회에 환원하고 현 회장은 지난 4년 동안의 행사에 대한 결산보고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공동 주최 및 주관 : 워싱턴 통합 노인 연합회 / 버지니아 한인회 (V.S.O.K.) 회장 우태창

미국이 원하는 '대통령', 답은 영화에 있다

영화로 보는 대통령 선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교체되는 것을 보면서 영화 '데이브'가 겹쳐진다. 영화에서는 실제로 대통령을 (일시적 이나마) 갈아 치우기 때문이다. 1993년, 무려 30여년전 영화다. 코미디를 주로 만들던 이반 라이트만 감독이 만들었다. 케빈 클라인이 1인2역을 하는데 현 대통령은 미첼, 그의 대역 이름이 데이브이다. 수잔 서랜든은 영부인 앨런 역할이다. 여기에 비서실장이 권력을 노리고 가짜 대통령 데이브의 맞수로 등장하면서 온갖 비리에 얼룩진 대선 캠페인이 벌어진다.

영화 '데이브'에는 당시로서는 미래 권력인 빌 클린턴 시대의 모든 정치적 스캔들이 들어가 있다. 클린턴의 성 추문, 이른바 지퍼 게이트를 예견하고 있다. 젊고 진보적인 대통령의 연설 행위를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다. 미첼은 특정 모임에 가는 대신 정부와 밀회를 즐길 요량으로 자신과 닮았다고 알려진 데이브라는 남자를 참석시킨다.

결국 데이브와 밥 알렉산더는 대선에서 격돌하게 된다. 영화 '데이브'는 조지 H W 부시를 꺾고 오랜만에 민주당에게 권력을 되찾게 해 준 청년 빌 클린턴을 향한 불안한 심리를 내포하고 있었던 작품이다. 젊은 그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변질되지는 않을까. 선거 과정은 정말 깨끗했을까. 극심한 마타도어나 지나친 네거티브 전략이 난무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영화의 불길한 예언은 실제로 4년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미국 대선을 절묘하게 풍자한 영화는 2006년 영화 '맨 오브 더 이어'이다. 할리우드 정치 풍자극의 대부 격인 배리 레빈슨이 만들었고 로빈 윌리엄스와 로라 리니, 크리스토퍼 월켄과 제프 골드브럼 등이 나온다. 영화 속 주인공 톰 돕스(로빈 윌리엄스)는 스탠딩 개그맨인데, SNL 같은 수위가 높은 라이브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인기다. 어느 날 방청객으로부터 당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그는 다음 날부터 엄청난 양의 대통령 출마 청원 편지에 시달린다. 매니저인 잭(크리스토퍼 월켄)은 오랜 세월 연예계에서 잔뼈가 굵은 현명한 노인답게 통찰력을 발휘한다. 톰 돕스를 무소속 후보로 나가게 한다.

1993 '데이브' 대선 비리 묘사 당시 클린턴 지퍼게이트 예견 '맨 오브 더 이어' 제3 후보 대통령 과오 인정하는 정치인상 표현 '스윙 보트' 한 표 가진 주인공 승자독식 체제 촌극으로 그려

미국 대선 배경으로 한 영화

데이브(1993·B)
감독 이반 라이트만 주연 케빈 클라인, 시고니 위버

맨 오브 더 이어(2006·B)
감독 배리 레빈슨 주연 로빈 윌리엄스, 로라 리니

스윙 보트(2012)
감독 조슈아 마이클 스톤 주연 케빈 코스트너



대통령 톰 돕스는 자신의 당선이 전산 오류 때문임을 고백하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한다. 시청자들은 이번엔 톰 돕스에게 '조용히' 열광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백악관 경호실장은 대통령직을 사임한 톰 돕스에게 다가와 굳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부른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당신을 모실 수 있어서 진정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영화는 미국이 원하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유머러스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넘어 솔직하면서도, 자신의 과오와 결점을 인정하며, 돈에 휘둘리지 않고 서민 대중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아직 그건 채 완성되지 않았거나 당분간 완성되기 힘든 일이라고 우회적으로 고백한다.

영화는 대리만족의 예술이며, 아무리 환상이라 하더라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자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맨 오브 더 이어'는 약 20년 전 영화이지만 지금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 귀감이 된다. 영화가 20년 앞서 있는 셈이다.

미국 대선 시스템, 특히 승자독식 체제의 명암에 대한 영화로는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2012년 영화 '스윙 보트'만 한 것이 없다. 텍사스와 더불어 공화당의 아성이라는 뉴멕시코 주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투표 촌극을 그린다. 뉴멕시코 주는 선거인단 5명을 차지할 수 있는 곳인데, 영화 속 공화-민주 후보는 기가 막히게 득표수에서 타이틀 기록한다. 주인공 버니는 자신의 표가 갑작스런 정전으로 무효가 되자 열혈 후계투표의 기회와 의무를 갖게 된다. 양당 후보는 버니의 한 표를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무식한 실직자에 불과했던 버니는 생애 최초이자 최고로 미디어의 포커스를 받게 되고 전국적 인물이 된다. 버니는 그 과정에서 정치적 각성을 한다. 그가 던진 표는 과연 누구에게 갈 것인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다소 복잡하다. 복잡다단한 정치 역사 탓이다. 특히 한 선거인단 제도는 뉴욕과 LA간에서 차가 존재할 만큼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지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톰 돕스가 유세 현장과 TV토론에서 인기를 끈 것은 물론 그가 말을 잘하고 유머가 넘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 속 국민들이 열광한 것은 그의 선거 캠페인, 정치적 슬로건이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직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양당 정치에 진력이 났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에 지쳤고 민주당에 지쳤습니다. 둘은 같은 당입니다.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2006년의 영화 속 톰 돕스는 2020년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에게 패한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을 연상시킨다. 혹은 샌더스처럼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블룸버그 통신의 창업자이자 뉴욕시장 출신인 마이클 블룸버그를 떠올릴 수도 있다. 미국 국민들은 실제로 지난 20년 가까이 민

주-공화 양 진영 모두에 진저리를 치고 있고, 극단적인 진영 싸움에도 지친 상태다. 현실 정치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인들이 영화 '맨 오브 더 이어'의 톰 돕스처럼 제3의 후보가 당선되는 기적을 현실에서 체험해 내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 선거의 고질적인 금권 제도 탓이다. 미국 선거는, 어느 쪽 후보가 됐든 누가 정치후원금을 더 많이 모으느냐, 그리하여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이인 미국에서 선거 캠페인 광고를 물량 공세로 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결국 미국 선거는 돈이 결정하는 것이며, 대통령이든 상하원의원이든 자본가와 자본주의 시스템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맨 오브 더 이어'에서 톰 돕스도 이를

의식한 듯 1960, 70년대의 히피와 록밴드처럼 전미 버스투어 유세로 또 한번 돌풍을 일으킨다. 그는 선거 광고에 돈을 쓰는 대신 직접 버스를 타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이 신선함이 그를 대통령직에 올려 놓는다. 그러나 영화는 그 과정 역시 영화적 신기루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한다. 톰 돕스의 인기가 최고조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근소한 차이로 양 후보를 누를 수 있었던 건 영화 속 투표 시스템인 터치스크린 방식의 집계 오류 때문이었음이 드러난다.

아마도 영화라서 가능한 얘기겠지만 톰 돕스는 오랜 시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위대한 결심에 이른다. 앞으로 죽어가는 오랜 친구이자 매니저이고 지금은 비서실장이 된 잭도 충언을 한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703.639.0882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올림픽에 전 세계 종교도 모였다

전 세계 스포츠인들의 축제인 2024 하계 올림픽이 지난 27일 프랑스 파리에 시작된 가운데, 개회식 공연에 '드래그퀸(여장남자)'이 등장하는 '최후의 만찬' 장면이 등장해 전 세계 가톨릭 교회와 기독교계의 반발이 일어났다. 일부 기업은 올림픽 기간 광고 후원도 철회했다.

'기독교 조롱' 파문이 커지자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종교 단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올림픽 개회식 연출을 두고 불쾌감을 느낀 모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해당 장면이 담긴 동영상 상을 공식 유튜브 사이트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 종교로 인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림픽의 탄생이 종교적 의식과 연결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림픽과 종교의 관계를 들여다봤다.

▶파리 올림픽 논란의 원인

가톨릭과 기독교계의 반발을 일으킨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이다. 기다린 식탁 앞에는 예수와 제자들 대신 푸른 옷을 입은 여성 양옆으로 드래그퀸, 트랜스젠더 모델 등 공연자들이 앉아 있었다. 뒤이어 등장한 프랑스 가수는 망사 옷차림으로 식탁 위에 누워 '별거벗은(Nu)'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가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열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진 장면을 다빈치가 묘사한 그림이다.

이 장면이 전 세계로 보도된 후 미네소타주 위노나·로체스터 교구장 로버트 배런 주교는 자신의 엑스(X-트위터) 계정에 "이는 극악무도하고 경솔한 조롱"이라며 "이 신성모독적인 행위는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깊이 세속화된 포스트모던 사회'를 상징한다"고 비판했다.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에서 지난 4월 16일 열린 파리올림픽 성화 채화식에서 대체사장 역할을 맡은 그리스 여배우 메리 미나가 성화봉을 전달하고 있다.

파리 올림픽 선수촌 안에 기독교, 힌두교, 불교 등 5대 종교 120명 모여 지원

탄생 배경은 그리스신화 올림브 나뭇잎 관 등에 종교적 의식 숨어 있어

했다.

그는 "그들이 감히 이슬람을 비슷한 방식으로 조롱했을까. 그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코란(이슬람 경전)의 한 장면을 조롱하는 꿈을 꿨을까"라고도 했다.

프랑스 주교회도 성명을 내고 "해당 장면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웃는 장면이었다. 이에 깊이 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도 29일 논평을 통해 레오

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패러디 장면은 인종, 남녀, 종교를 넘어 상호 이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으며 조직위원회가 이념을 끌어들이므로써 올림픽의 미래를 어둡게 했다고 비판했다.

미시시피에 본사가 있는 6대 통신업체 C스파이어는 SNS를 통해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최후의 만찬을 조롱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올림픽에서 회사 광고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의식에서 출발한 올림픽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은 그들의 신 숭배와 연결돼 있다. 지난 4월 16일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유적지에서 열린 성화 불꽃 점화 행사를 보면 여사제가 나와 고대 그리스의 태양신 아폴로에 기도를 올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지난 2016년 종교뉴스서비스는 역사학자 폴 카틀리지의 말을 빌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올림픽 게임의 스포츠는 문자 그대로 종교적 운동이었으며, 종교

교적 헌신과 숭배를 나타내는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예로 제우스에게 바쳐진 신성한 숲에서 자란 올리브 나뭇잎으로 만든 관, 과거 우승자들이 관을 쓸 때 제우스 신전으로 행진하고 신전 앞 제단에서 동물들의 피와 재를 뿌리던 의식 등을 소개했다.

이러한 행위가 이어졌던 고대 올림픽은 393년 기독교인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모든 이교 의식을 금지하면서 올림픽 게임도 취소됐다.

▶재부팅된 올림픽

약 1500년 동안 금지됐던 올림픽은 1889년 국가 간의 평화를 촉진하고 프랑스의 운동성을 재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활했다. 프랑스 귀족이자 예수회 교육을 받은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영국 여행 도중 영국 국교회의 집사이자 '근육 기독교'를 옹호하는 토마스 아놀드의 작업을 접한 후였다. '근육 기독교'는 신체적 강화와 종교적 경건함의 결합이 전인적이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남성을 만든다는 아이디어다.

피츠버그에 있는 로버트 모리스 대학 안토니오 모레티 교수(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드 쿠베르탱은 올림픽 운동선수는 "개인적인 신성한 성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믿었다. 드 쿠베르탱은 18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창립 후 2년 후 아테네에서 진행된 첫 대회에 고대 게임의 종교적 장식들을 대거 사용했다.

▶시민 의식으로 탈바꿈

오늘날의 올림픽 게임은 고대 못지않게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올림픽 깃발 게양, 올림픽 찬가 연주, 올림픽 성화 점화가 그렇다. 개회식 동안 운동선수와 코치들이 맹세하는 '올림픽 서약'도 있다.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공정하게 경기하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맹세다.

모레티 교수는 "그 규칙을 따르고 승리는 선수들은 거의 '신성한' 선수로 존경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은 법적 처벌보다는 영적인 처벌을 받는다. 또 올림픽이 끝나면 경기가 열렸던 장소는 일종의 신성한 장소가 되어 많은 이들이 찾는 장소로 변한다.

현대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많은 올림픽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해 종교적 지원을 찾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경기 중 특정 종교적 상징은 금지하지만, 개인적인 공개 활동은 허용한다.

AP뉴스에 따르면 현재 올림픽 선수촌에 세워진 공간에서 120명 이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정신적인 지원을 제공 중이다. 이 기사는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세계 5대 종교의 대표들도 움이 필요한 운동선수나 직원들을 위해 예배와 기도를 하고, 고민과 정신적 어려움을 경청하는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연화 기자

조명환 목사 신간 출판 '자이언트캐년에서 눈물이 나다'

크리스천 위클리 발행인 조명환(사진) 목사가 신간 '자이언트 캐년에서 눈물이 나다'를 출판했다.



책은 제2의 고향 LA에 바치는 '마음의 편지'이자 미주 한인교회에 바치는 글이라는 말로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사랑을 전했다.

크리스천 위클리에 실렸던 칼럼 '쓴소리 단소리'를 엮은 두 번째 책으로, 미국에 사는 이민자이자 목회자, 30여 년 넘게 기독교 언론인으로서 살아온 저자가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독교 사회에 던지는 글이다. 저자는 책 머리에 "이번에 발간한

지역사회 이슈부터 신학, 역사, 영화, 여행지에서 느낀 단상까지 총 106개의 글은 >자이언트 캐년에서 눈물

이나다 >우리 집 새 식구 '헤이 구글' >'어니'와 '버트'는 게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3개 섹션에 나눠져 수록돼 있다.

한편 조 목사의 신간 출판 감사예배가 지난 20일 오후 4시 LA한인타운에 있는 용수산 식당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 공동대표)가 '깨우치게 하는 자

(사 50:4)'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상명 박사(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의 서평, 이창민 목사(LA 연합감리교회 목사)의 축사,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의 축도 순서가 이어졌다.

이 박사는 이날 "언론인 하면 보통 무정하고 예리한 비판가라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조 목사의 문장은 우리 교회와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도 비난하지 않는 따뜻함이 있다"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접은 꿈을 다시 풀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용기를 주는 일화가 조 목사의 자이언트 캐년에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조 목사의 저서로는 '미국의 8대 한인교회' '어머니 내게는 히트곡이 없어요' '아직 큰 배는 오지 않았다' '이름값 하는 교회'가 있다.

장연화 기자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신제품 세종 후코펫

-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 GMP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Fucoidan: 항종양효과, 면역력증대, 세살개선포과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강화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진완화, 통증완화,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신제품 NEW

SEJONG FUCO PET

세종 후코펫 Supplement Powder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Sejongbiotech, Inc.

세종바이오텍

703-256-7671

www.sejongbiotech.us | www.sejongbiopet.us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정선화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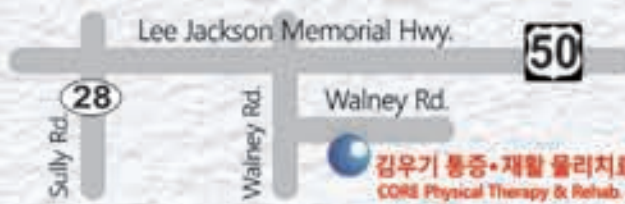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미국 법원 “구글은 독점기업” 판결… 검색시장 지각변동 예고

MS 이후 25년만에 최대 반독점 소송
미 정부 “독점유지 위해 연 35조 써”
1심 “검색 시장서 경쟁기회 훼손”
최종 패소 땀 사업분할 가능성도



‘검색의 제약’ 구글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검색 분야에 강력한 경쟁자가 속속 등장한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은 독점기업”이라고 판결했다. 구글을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법원의 아이 메타 판사는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구글 패소 판결했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서 메타 판사는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기업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미국의 일반 검색 서비스와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배포 계약을 통해 독점을 유지함으로써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미 법무부가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고 5월 3일 최종 변론이 끝났다. 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25년 전 제기한 소송 이후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으로 꼽히는 탓에, 현지 언론들은 이를 ‘이징표적 소송(Landmark Case)’으로 불렀다. 뉴욕

타임스(NYT)는 이날 “현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기업의 힘을 공격하고 그들의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선통신사, 브라우저 개발자 및 기기 제조업체, 특히 애플과의 반경쟁적 거래를 위해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아이폰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에만 애플에 200억 달러(약 27조 4400억원)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회사가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지급한 돈은 2021년에만 총 260억 달러(35조 6600억원)에 달했다. 2009년 80% 이상이었던 미국

내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2020년 거의 90%를 찍었고, 모바일 기기에선 95%에 육박했다.

메타 판사는 법무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구글이 경쟁을 억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구글의 검색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구글의 유통 계약은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경

쟁사의 경쟁 기회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이를 통해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스폰서 텍스트 광고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 혁신과 초기 투자 덕분에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지난해 10월 30일 법정)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색은 구글의 핵심 사업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록한 847억 4000만 달러(약 117조 3000억원)의 매출 중 76.3%에 해당하는 656억 2000만 달러(약 89조 5400억원)가 검색엔진을 통한 광고수익 연관 매출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번 소송을 “구글 역사상 최대의 법률적인 위협”이라고도 평가한 이유다. 구글이 최종적으로 패소한다면 최악의 경우 검색 사업을 분할하거나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날 WSJ는 레베카 앨런스워스 벤더빌트대 로스쿨 교수를 인용해 “재판부가 구글의 검색 계약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설정한 검색엔진을 사용하기보다는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검색엔진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정용환 기자

▶ 1번 ‘해리스’에서 이어집니다

월즈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진보 색채는 더욱 짙어지게 됐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에서 ‘민주주의 진영 대 민주주의 위협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트럼프 캠프로부터 “급진 좌파”라는 공격을 받는 해리스 부통령의 외연 확장 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미네소타주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라는 점과 월즈 주지사 대한 전국적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그의 득표력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마리하나 합법화 등 법안에 서명한 팀 월즈는 확고한 진보주의자”라고 평하며 “미네소타는 대선 승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월즈의 부통령 후보 지명 소식이 나오자 곧바로 비판 공세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슈퍼팍(Super PAC) 정

치자금 모금단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는 X(옛 트위터)를 통해 “팀 월즈는 통치하는 법을 모르는 무능한 자유주의자”라며 “그와 카말라 해리스는 잘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선거캠프 관계자도 CNN에 “월즈가 부통령 후보로 선택된 건 해리스가 급진적 자유주의자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네브래스카주 웨스트포인트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월즈 주지사는 고교 졸업 후 1981년 부친의 권유로 미 육군 방위군에 입대했다. 그의 부친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다. 월즈 주지사는 1989년 체드린 주립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해외에서 1년간 교사로 일했고, 귀국 후 고교 지리교사 겸 미식축구 코치로 근무하다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있던 아내 그웬 위플을 만나 결혼했다. 월즈 주지사가의 정생활을 시작한 건 2006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되면서다. 이후 내리 6선에 성공했다. 그의 지역구인 미네소타 제1선거구는 미네소타 남부의 광활한 농촌 지역을 대표한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돈은 못버는 ‘척척박사’… AI 버블론 왜

전문학적 투자에 비해 수익 미미

글로벌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버블(거품)’론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생성 AI에 대한 기대와 투자가 명시적이고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업계 안팎에선 버블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미국 나스닥 상장 주요 테크 기업인 ‘매그니피센트7’(애플·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테슬라·엔비디아·메타)의 주가는 줄줄이 하락했다. 업계에선 이번 하락 사태 배경 중 하나로 ‘AI 버블론’을 지목하고 있다. 매그니피센트7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6개 빅테크가 생성 AI에 집중하는 기업들이어서다. 특히 엔비디아는 생성 AI 개발과 활용에 꼭 필요한 GPU(그래픽처리장치) 공급자로 생성 AI 붐의

가장 큰 수혜자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엔비디아 주가는 버블 상태이며, AI 붐은 과장되어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시장이 생성 AI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의문을 품기 시작한 이유는 AI 기업들이 수익성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 몇 년 사이 빅테크의 AI 투자는 크게 늘었다. FT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 메타, 구글의 AI 관련 투자(자본지출)는 총 1060억 달러(약 145조원)로 전년 동기보다 50% 증가했다. 특히 MS의 경우 오픈AI에만 약 13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지난달 오픈AI의 올해 적자가 최대 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수익은 35억~45억 달러가 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LLM(거대언어모델)의 데이터 학습 비용, 인건비 등으로 발생 비용 추정치 85억 달러가 문제다. 지난 6월 미국의 대형 벤처캐피털(VC) 세쿼이아캐피털은 자사 홈페이지에 ‘AI의 6000억 달러 문제’란 글을 올려 AI 투자비용과 실제 수익 사이의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잉 투자 우려에도 빅테크들은 향후 AI 추가 투자를 계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승자독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미 거대언어모델(LLM) 경쟁은 ‘머니게임’이 된 상황이다. 이런 버블 속에서 한국이 가야 할 길은 LLM의 위에 있다. 유승운 스톤브릿지벤처스 대표는 “LLM이라는 플랫폼은 미국을 제외하고 사실 제대로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나라가 그간 잘해왔던 것, 플랫폼 위에 빠르게 앱을 만드는 것에 기회가 있다”고 했다.

김남영·정용환·윤상언 기자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8월 HOT 리스팅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비엔나 타운홈
방3+화3+차고2
2001년, 2100sf
켈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페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한국 TV시청가능 (개인별)
- *최고의 시설 (1인1실)
- *최적의 동네 면로링
- *형질하고 쾌적한 실내
- *INOVA 병원 5분거리
-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덕담 확인해 보세요

문의 703-980-9890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이재명 “윤 대통령 만나고 싶다”… 민주당 내 협상론 고개

이재명 “대결정국 해결 논의하자”
당내 “법 강행→거부권 무력감”
중진 중심 “여야 협의 회복” 목소리
추경호도 금투세 폐지 논의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지수·김두우·이재명 당 대표 후보(왼쪽부터)가 6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란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엄혹해서 어떻게 타개할지, 꼭 막힌 대결 정국은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얻지는 못했다.

이 대표의 말은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협상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눈길을 끌었다. 최근 당내 중진들은 “여야 협의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강력한 대응을 그동안 잘해 왔지만 지혜롭게 접근해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은 실제 특검을 실현하는 게 중요한데, 그

걸 관찰시킬 원내 전략이 그동안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의총에서도 “여야가 최대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법안 처리와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보고 ‘민주당의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 의원들이 최근 합의 처리 필요성을 많이 주문한다”고 전했다.

협상론의 배경은 무력감이다. 한 초선 의원은 “때가 되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나가 찬성표를 던지지만 여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해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의원들이 집단 우물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 한 달여 동안 7개 법안(순직해병특별법·방송4법·25만원지원법·노랑봉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요구권)을 행사했거나 행사가 예고돼 있다. 무더기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이 ‘우리 당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걸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데 그친다”(민주당 관계자)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 사이에서도 협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쟁 법안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시급한 민생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진 의장은 7일 처음 만난다.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등이 의견 접근이 가능한 법안으로 꼽힌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전날 주가 폭락

을 언급하며 “주식시장 변동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를 더 지체할 수 없다”며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여당은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현상 유지론과 완화된 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금투세 폐지를 조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손국화·성자원·강보현 기자**

“광개토 사업은 기획 공작” 정보사 내홍, 기밀까지 노출한 장성

사령관·여단장 갈등 빛다 소송전
공작사업 암호명 고소장에 담겨

국군의 해의 첩보 기관인 국군정보사령관 수장과 정보사의 핵심 조직인 ‘휴민트(HUMINT, 인간정보)’ 정보여단장이 충돌하며 정보사의 기밀 공작 방식과 암호명(코드네임)까지 노출되고 있다. 폭로전 수준의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며 군무원의 ‘블랙요원(위장 신분 요원)’ 정보 유출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여단장의 고소장 등에 따르면 정보사 A사령관(소장·육사 50기)과 B여단장(준장·육사 47기)은 올해 1~2월 정보사 출신 예비역 단체 군사정보발전연구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고소 사태로 이어졌다. B여단장은 대북 휴민트 공작을 총괄 지휘하는 자리로, 해당

단체에 서울 충정로의 정보사 영의 사무실(오피스텔)을 사용하게 했는데, A사령관이 이를 질책했다.

B여단장은 고소장에서 “해당 단체는 정보사의 기획 공작인 ‘광개토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령관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다”며 “올해 5월 22일 사령관 사전 보고에서 ‘다음 보고시 광개토 기획 사업을 문서로 구체화하고 해당 영의 사무실에 여단 공작팀을 상주시키는 방향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광개토 기획 사업’이라는 극비 공작 사업 암호명과 추진 경과, 보고라인이 노출된 것이다.

전직 정보사 관계자는 “정보사 공작은 보안이 핵심으로, 존재조차 비밀에 부쳐져야 하는 일”이라며 “사령관과 여단장의 갈등이 알려지고 암호명까지 거론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최태원, 500쪽 상고이유서 제출… 1조3800억 이혼소송 대법으로

“300억은 노태우 활동비 약속한 것”
비자금·특유재산 등 2심 판단 반박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지난 5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1조3800억원, 위자료 20억원’이 선고된 세기의 이혼 재판의 최종심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 회장의 상고이유서는 대리인인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이 제출했다. 각각 100쪽·400쪽 분량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전면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 여부다.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중현 선대회장에게 간직한다는 어음을 말한다.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이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1992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을 증거로 제시하며 알려졌다. 항소심은 이 자금이 SK그룹 성장의 근원이 됐다고 본 반면, 최 회장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반박했다. **김준영 기자**

SK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 미 보조금 6200억원 받는다

HBM 등 제조, 6900억 대출
투자액의 25% 세계 혜택도

미국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는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4억5000만 달러(약 6200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받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6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투자와 관련해 최대 4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과 5억 달러(약 6900억원) 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비 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는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투자하는 금액의 최대 25%까지 세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4월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첫 반도체 공장부지로 중부에 위치한 인

디애나주를 선정했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퍼듀대학교 등 인근 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는 총 38억7000만 달러(약 5조2200억원)다. 2028년부터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 반도체 조립이 이뤄진다. **이희권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정승욱
연방세무사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영선
연방세무사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DC 창고 SOLD \$2.5M DC, NoMa Metro 상권	DC 사당센터 SOLD \$2.4M DC, Capital Hill 지역	DC 단독건물 SOLD \$1.5M Benning Rd. 개발지역	DC Mixed-Use SOLD \$1.6M Capital Hill 지역	DC 사당센터 SOLD \$4.5M Popeyes, 연인권 \$32만	DC NW 아파트 SOLD \$1.5M Metro 상권, 5유닛
DC Georgetown SOLD \$1.5M Retail / Residential	DC H Street LEASED 단독건물 Union Station	DC Warehouse SOLD \$6.8M 67,000sf, Industrial	DC Warehouse SOLD \$5.8M 56,000sf, 창고 6에이커	DC Warehouse SOLD \$3.6M 냉장 / 냉동고, 창고	for SALE \$1.8M DC 3유닛 주상복합

DC 건물 리스팅하실 분들



703.395.3123

이번엔 낙뢰 비상... 하루 40번 번개 친 광주 30대 중태도

대기 불안정해 시도때도 없이 발생 시간당 100mm 극한 소나기도 잦아 번개 뒤 천둥소리 들리면 피신해야



오늘 입추, 낮 최고기온 36도 6일 충남 계룡시 도로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폭염 경보 발령 문구가 나오고 있다. 5일 서울 도심에 번개가 치고 있다. 같은 날 동대구역 인근에선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왼쪽부터). 입추인 7일도 36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된다. 프라렌서 김성태, (뉴스시스)

장마가 공식 종료됐는데도 극한 호우와 낙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극심한 폭염 속에 소나기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순식간에 비를 쏟는 탓이다.

기상청은 6일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를 발표했다. 이날 강원 춘천에는 시간당 54.5mm, 경기 성남은 시간당 47.5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다. 앞서 5일 저녁에는 전남 무안에서 시간당 102mm, 칠곡에 98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최근 기상청은 매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 호우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장마 종료 후 고온다습한 남서풍과 동풍 계열

의 바람이 한반도 내륙에서 만나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전국 어디서든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8일까지 전국 곳곳에는 5~60mm,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예보됐는데, 기상청은 “시간당 30~50mm, 많게는 80mm 수준으로 매우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렇게 강한 소나기가 내릴 때는 낙뢰가 떨어질 위험도 커진다. 낙뢰는 시간당 많은 비를 뿌리는 구름(적운)과 함께 오기 때문이다. 5일 정오 광주광역시에선 낙뢰 사고가 발생해 30대 1명이 현재 의식 불명 상태다. 당시 이 지역에는 시간당 60mm의 호우와 함께, 오후 4시45

분까지 낙뢰가 40회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장은철 공주대학교 교수는 “적(란)운은 구름이 상하로 15km에 달할 정도로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순식간에 비를 쏟고 지나가지만, 강도는 매우 강할 수 있다”며 “강한 소나기 10번 중 1번은 천둥·번개·낙뢰 등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수직으로 발달하는 적운은 공기의 상승과 하강 이동이 활발할 때 형성된다. 이에 따라 구름 안에서 얼음 알갱이가 오르내리게 되는데, 이때 무거운 얼음 알갱이는 음전하를, 가벼운 얼음 알갱이는 양전하를 띠게 된다. 그러면 두 전하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번개가 치거나,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 전기가 흐르는 낙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낙뢰 사고는 최근 들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에는 3명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해 1명씩 낙뢰 사고로 사망했다.

기후변화가 진행될수록 낙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목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대기 하층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는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대류 현상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대류 현상이 강할수록 낙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극한 호우가 산지에 집중돼 낙뢰 현상도 인적이 없는 산지에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낙뢰 위험도 커졌다. 번개를 목격한 뒤 30초 안에 천둥소리가 들리면 낙뢰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외에 있는 사람은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피신해야 한다. 큰 나무 밑과 물기 있는 곳은 위험하다. 등산용 스틱이나 낚시대 등 긴 물건을 버리고 가능한 몸을 낮추는 게 좋고, 마지막 천둥소리를 들은 후 30분 정도 기다린 뒤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은혜 기자

친척 등 연구원 허위등록해 6억... R&D 지원금 5년간 212억 썼다

(산업부)

부정사용 늘었는데 환수 31%뿐 “예산 감독·환수절차 강화해야”

연구개발(R&D) 회사인 A사 대표 B씨는 배우자와 친척,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을 정부 사업에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와 수당을 탔다. B씨는 7년이 넘는 기간 이렇게 지

급된 5억57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에 지원한 R&D 사업비의 부정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지원금을 유용(횡령)하다 적발된 금액은 최근 5년간 212억3600만원에 달했다. 부정 사용 금액은 늘었지만,

5년간 총 환수율은 31% 수준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실시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R&D 사업비 중 올해 상반기 부정 사용으로 제재 처분이 결정된 금액은 53억1800만원에 이른다. R&D 사업비 부정 사용으로 확인된 금

액은 2021년 5억2800만원에서 2022년 21억6200만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59억9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 부정 사용액은 이미 지난해 횡령액의 90%에 가깝다.

최근 R&D 사업비 횡령 사례 중에서는 ‘물품을 실제로 사지 않았는데 산 것으로 하거나, 가격을 부풀려서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허위 물품 대금을 통한 사업비 횡령액은 2022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54억6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 유용 방지 체계를 개선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의원은 “R&D 지원금 사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신동업 유튜브서 “짠” 하면... ‘지나친 음주는 치매 유발’ 뜬다

건강증진개발원, 가이드라인 강화 TV와 달리 유튜브는 별도 규제 없어 어린이·청소년에 ‘음주 미화’ 우려 미디어 음주 관련 12개 항목 만들어 경고문구 삽입 등 자율적 실천 독려

“유튜브가 좋네. 술을 쭉쭉 마시고...”

방송인 신동업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술방(술 마시는 방송)’에서 한 말이다. 이는 술방에 적용되는 유튜브의 ‘관대한’ 가이드라인과 맞물린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장면은 규제하지만 성인의 음주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미디어 음주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면서 유튜브 술방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연령 제한 설정 등

유튜브의 자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튜브에서 술방은 대세다. 신동업의 ‘짠한형 신동업’ 채널은 3개월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채널 소개란에 ‘취중진담 쇼’라고 내세운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은 구독자 300만명을 훌쩍 넘겼다. 가수 조현아의 ‘목요일 밤’, 기안84의 ‘술터부’도 술이 빠지지 않는 인기 토크 콘텐츠다.

문제는 술방 콘텐츠에서 음주를 미화한 장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음주 미화란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말하거나 음주를 즐거운 경험으로 묘사하는 걸 의미한다. 술을 이성 관계의 ‘유희’로 표현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로 내세운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다. 건강증진개발원이 이런 기준으로 술방 영상 조회 수 상위 10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음주 미화 장면은 2021년(27.8%)에 비해 2023년 3배(78%) 가까이 늘었다.

TV 매체에선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유튜브는 TV와는 달리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술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음주에 대한 환상이나 왜곡된 인식을 갖기 쉽다. 건강증진개발원의 ‘2022 청소년 음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중·고교생의 약 10%는 드라마·예능의 음주 장면을 시청한 후 술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접적 규제는 여의치 않다. 유튜브가 해외 사업자인 만큼 강제 조치에 나서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건강증진개발원은 술방 유튜브 채널에 대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자율적 실천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12개 항목까지 늘리는 식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엔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등 2개를 추가했다.

일부 유튜브 채널들도 강화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음주 경고 문구를 넣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짠한형 신동업’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출연자들이 첫 잔을 들자 하단에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술 마시며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의 대표 채널인 ‘짠한형 신동업’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란 자막이 붙었다.

문상혁 기자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컷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p>주6일 프렌차이즈 \$320K 인컴 \$1만 페어팩스 버지니아</p>	<p>주6일 Deli \$370K 인컴 \$2만 몽고메리 메릴랜드</p>	<p>주6일 Deli \$180K 인컴 \$1만 PG 메릴랜드</p>	<p>주6일 Deli \$250K 인컴 \$1만 페어팩스 버지니아</p>	<p>프렌차이즈 / 카워시 / 리커</p> <p>미엘신 케빈신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p>
--	---	---	---	--

메달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MZ 안세영 '넓은 시스템'에 분노했다

배드민턴협회에 작심 쓴소리
안세영 "단식·복식 훈련법 달라야
양궁처럼 체계적 시스템 갖춰야"
용산 "윤 대통령도 인지, 조사할 것"



6일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 그러나 우승 직후 "선수 보호 및 관리에 미숙한 배드민턴 협회에 실망이 컸다"고 밝혔다. **파리=김성룡 기자**

"목표(올림픽 금메달)를 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의 원동력은 분노였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셔틀콕 여제' 안세영(22·삼성생명)은 기쁨과 후련함 대신 분노와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5일(한국시간)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허빙자오(중국)를 꺾고 우승한 직후 그는 "부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실망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계속 가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작심 발언은 이어졌다. 문제의식을 갖게 된 시점을 "2018년에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던 그 순간부터"라고 밝힌 그는

"단식과 복식에 따라 코칭스태프 구성과 훈련 방식이 달라야 한다. 체력 운동 프로그램도 보다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넓은 시스템 아래에선 오히려 부상 위험이 크다. 협회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 방식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이 국가대표 은퇴로 여겨지자 6

일에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배드민턴협회나 (김학균 대표팀) 감독님이 (책임) 떠넘기는 모습에 또 한번 상처를 받는다"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은퇴가 아니라 선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대회에 전담 코치를 동행하는 외국 선수 사례를 소개하며

"경력력 관리를 위해 개인 트레이너를 쓰고 싶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문제 제기는 '결과'만큼, 어쩌면 그 이상 '과정'을 중시하는 '영 코리아' 운동선수들의 달라진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메달에만 연연했던 과거와 달리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이들은 도전 자체를 중시한다.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면 그 자체를 즐기고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인다. 이번 일은 결과로 과정의 문제를 덮고 넘어가던 관행에 선수가 직접 제동을 건 경우다. "배드민턴도 양궁처럼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어느 선수가 나가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변화의 방향성까지 제시했다.
한 배드민턴계 인사는 "안세영이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 이를 위해 법적 조치도 불사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배드민턴의 경우 세계랭킹 상위권 선수는 국제대회 자동출전권이 주어져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아도 출전할 수 있다. 이용대 등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사례가 있다. 다만 협회 규정상 '만 27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 규정이 있다. '법적 조치도 불사'라고 말한 배경으로 보인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안세영의 불만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는 없는 일로 안세영 선수와 협회의 입장을 듣고 공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안세영의 폭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송지훈·박태인 기자, 파리=피주영 기자

허미미 "할아버지 메달 따왔어요, 다음엔 금 따올게요"

귀국 직후 독립투사 5대조 묘 참배
허 "행복해서 자꾸 웃음만 나와"



6일 대구시 군위군 허석 의사 묘소에서 허미미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들어보았다. **[뉴시스]**

"할아버지, 메달 따 왔어요. 다음엔 금메달 갖고 올게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개인전 은메달, 단체전 동메달을 딴 유도 대표팀 허미미(21·경북체육회) 선수가 6일 대구시 군위군 삼국유사면에 있는 한 묘소를 찾아 이렇게 말했다.
높게 솟은 묘비에는 '효의공 허석 의사 순국 기적비(孝義公許碩義士殉國紀蹟碑)'라고 적혀 있었다. 이곳은 허 선수의 현조부(5대조)인 허석(1857~1920) 의사 묘소였다. 허석 의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격문을 붙이다 옥고를 치렀던 독립투사다.
허 선수는 올림픽 일정을 끝내고 지난 5일 동료들과 귀국한 뒤 첫 일정으로 현조부를 찾았다. 허 선수는 파리 올림픽에서 따낸 은메달과 동메달을 현조부 기적비 앞에 바치면서 승전보를 알렸다. 허 선수는 "할아버지께 메달을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다. 할아버지가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림픽 단체복을 입고 묘소에 도착한 허 선수는 사람들의 요청에 일일이 함께 사진을 찍어줬다. 허 선수는 "행복해서 자꾸 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허 선수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3세대.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유도를 배웠다. 중학교 때 전국구 선수로 성장해 일본 유도 최대 유망주로 꼽히기도

했다.
2021년 "태극마크를 달고 선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그는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행을 택했다. 허 선수는 경북체육회에 선수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인 허무부씨가 허석 의사 증손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허미미는 2022년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단 뒤 국제대회마다 굵직한 성과를 냈다. 2024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여자 57kg급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꼽혔다. 그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기대한 대로 결승에 진출했지만, 결승전에서 세계 1위 크리스티 테구치(캐나다)에게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졌다. **대구=김정석 기자**

한팔로 한계 깬 당신, '꿈메달'입니다

알렉산드르 브라질 탁구선수
6개월 때 백신 부작용, 오른팔 절단
남들 따라잡으려 서브만 3년 훈련
도쿄패럴림픽 이 이어 올림픽 출전
"졌지만 자랑스럽다, 4년뒤 재도전"

촬영을 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낸 관중에게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는 경기 후 "나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겼다"며 "나는 영웅은 아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 특히 장애인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알렉산드르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백신 부작용에 따른 혈전증으로 오른팔을 잘라냈다. 그는 "내게 오른팔이 있었다는 기억조차 없다. 원래 왼손잡이였는지, 오른손잡이였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커가면서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왔기에 괜찮았다"며 웃어보였다. 일곱 살 때 오빠를 따라 처음 탁구채를 잡은 뒤로는 삶에 '탁구'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한 팔로 남들과 똑같은 서브를 하기 위해 3년을 쏟아부었고, 스케이팅보드와 풋살로 균형 감각을 길렀다.
어느덧 패럴림픽에서는 세계 정상권으로 올라섰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여자 단식과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땀고, 2021년 열린 도쿄 패럴림픽에서는 단식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알렉산드르는 그 후 '장애인 대회'의 장벽을 넘어보기로 결심했다. 꾸준히 장에 없는 선수들과 대결하면서 올림픽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 2월엔 부산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에 참가해 비장애인 선수들을 상대로 4승(2패)을 거뒀다. 결국 브라질 탁구협회는 지난



브라질 대표로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출전한 브라질 알렉산드르(왼쪽)가 6일 여자 단체 16강전에서 한국과의 경기를 마친 뒤 관중들의 환호 속에 활짝 웃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브루나 알렉산드르(29·브라질)는 다른 선수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서브를 넣는다. 왼손에 든 탁구채에 공을 올려 높이 띄우고, 다시 왼팔을 재빨리 휘둘러 네트 건너편으로 보낸다. 그에게는 탁구공을 칠 수 있는 오른팔이 없다. 두 팔의 뒀을 흘려 해내는 그의 왼팔에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 더 강해지는 쪽을 선택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알렉산드르는 6일(한국시간) 프랑스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 16강전에 브라질 대표로 출전해 한국 선수들과 맞붙었다. 지올리아 다카하시와 짝을 이룬 1복식에선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신유빈-전지희 조를 상대했고, 마지막 주자로 나선 4단식에선 이은혜와 대결했다.
결과는 완쾌였다. 복식과 단식 모두 세트스코어 0-3으로 저 8강행 티켓을 한국에 내줬다. 그래도 알렉산드르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자신을 꺾은 신유빈-전지희-이은혜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웠다는 '손가락 하트'를 연출하며 즐겁게 기념

6월 그를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로 선발했다.
알렉산드르는 국가대표로 뽑힌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벅찬 소감을 남겼다. "내가 야기였을 때, 팔을 잃은 나를 보며 울고 있던 부모님에게 누군가 '훗날 딸이 분명 자랑스러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 나는 이런 성취를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됐다. 하늘이 내린 꿈은 절대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렉산드르는 이제 29일 개막하는 파리 패럴림픽을 준비한다. 알렉산드르의 롤 모델은 '한팔 탁구'의 전설인 나탈리아 파르티카(폴란드)다. 파르티카는 네 차례 올림픽에 출전했고,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알렉산드르는 "이번 패럴림픽에선 아직 따지 못한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게 목표다. 그리고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 2026 LA 올림픽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배영은 기자**

페어팩스 타운홈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875,000 방3, 화3.5, 차고2. 2001년산 End Unit, Super Location, Walk-Out, 새지붕, 2층 새카펫, New Appliances	렌트 \$3,200 방3, 화2.55, 차고1, 전체마루 한인 커뮤니티센터근처, 굿로케이션, Move-in Ready	\$880,000 방4, 화3, 차고2, Ranch 스타일, 1.12 Acre, All Brick, 새지붕&새 거터, 잘 가꾼 뒷마당숲이 아름다운 집	\$1,250,000 방 4/ 화 3.5/ 차고2, 코너집, 굿로케이션, Many Upgraded, Library, Recreation Room, 아름다운 정원, 주인이 잘 관리한 집
---	---	---	--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우리말 바꾸기

산 넘어 산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더 힘든 일이 이어지는 걸 한자 성어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고 한다. 속담으로는 '갈수록 태산'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또 다르게는 '산 넘어 산'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산 너머 산'으로 잘못 적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산 넘어 산'과 '산 너머 산'의 차이는 무엇일까. '넘어'는 동사 '넘다'에서 활용한 것이므로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다'란 의미가 살아 있다. 즉 '동작'을 나타낸다. '산 넘어 산'은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있다는 것으로 힘든 일이 계속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에 반해 '너머'는 '넘+어'에서 오긴 했지만 '동작'의 의미는 잃어져서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때는 '위치'를 나타낸다. 즉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산 너머 산'이라고 하면 '산 저편의 산'을 의미한다.

'못미처'와 '못미쳐'도 이런 유형의 구별이 필요한 표현들이다. '못미쳐'의 경우는 '공간적 거리나 수준 따위가 일정한 선에 닿다'란 의미의 동사 '미치다'에서 활용한 것으로 '미치+어' 형태이므로 '미쳐'로 쓴다. '못미쳐'는 일정한 곳에 이르지 못한 거리나 지점을 이르는 명사로서 '미쳐'와는 형태를 다르게 적는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시론

'모임' 과 김민기



장태한
UC리버사이드 교수
김영욱재미동포연구소장

을 이끌던 오소공의 죽음으로 유랑극단을 이끌게 된 만삭과 세실이, 그러나 유랑극단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1979년 여름 장소현 작으로 '이철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연극 '아름다운 그이는 사 람이여라'에서 이철수 역을 맡게 된다. '이철수 사건'은 한인 이민사뿐 아니라 소수계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이철수는 1972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갱 멤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런데 복역 중 백인 우월주의자인 한 수감자가 이철수를 살해하려다 몸싸움 과정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이철수는 사형수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한인 언론계의 원로인 이경원 기자가 당시 이 사건에 의문을 갖고 파헤치면서 결국 진실이 밝혀져 이철수는 무죄로 석방됐다. 연극은 이런 내용을 다뤘다. 연극 수익금은 전액 이철수 구명 후원회에 전달할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연극 배경음악으로 얼마 전 고인이 된 김민기의 노래들이 많이 쓰였다. 그렇게 '모임'

극회와 김민기의 인연이 시작됐다. 김석만 교수와 김민기는 서울대학교 연우무대 동기로 절친한 사이였다.

그래서 연극에서 김민기의 노래를 부르고 배경 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모임' 회원들은 1980년대 김민기가 시작한 신정 야학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김민기를 딱 1번 만난 적이 있다. 대학로 학전에서 성황리에 공연되던 '지하철 1호선'을 김석만 교수와 함께 관람한 후 김민기와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나는 1984년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아내와 함께 '상록수'를 불렀다. 그리고 김민기의 '친구'는 나의 애창곡 중 하나다.

김민기의 노래들은 1970~80년대 한국의 독재정권 시절 많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 줬다. 특히 '아침이슬'은 대표적인 저항 가요로 불렸다. 김민기 전 학전 대표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모임'과의 인연이 떠올랐다.

한인 사회에서 50년간 지속하는 모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다툼도 있었지만 다시 화해하고 우정을 나누고 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해 본다. 구본우, 제임스 김, 장사한, 박무영, 박준성, 백광호, 김영수, 노재유, 김교호, 강용석, 이광진, 김정석, 그리고 김석만. 그리운 이름들이다.

열린광장

그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윤재현
전 연방공무원

우리 주택 단지 안에 67세의 독거 시니어가 살고 있다.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그의 취미다. 그는 항상 야구 모자를 쓰고 현관에 앉아서 고양이에 게 먹이를 주곤 했다.

몇 달 전 그에게 말을 걸었다. 도대체 고양이를 몇 마리나 기르느냐고. 그는 열다섯 마리라며 얼버무린다. 사실은 너무 많아 그도 확실한 숫자를 모른다. 의자에 앉기를 권하는데, 발디딜 틈조차 없다. 빈 맥주 강통, 술병, 포장지, 담배 껍질 등 쓰레기가 너저분하다. 하루 종일 앉아서 맥주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일과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내는 없냐고 물었다. 여자 친구가 있는데, 요즘은 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다. 미국에서는 남자 12명 가운데 1명, 그리고 여자는 25명의 가운데 1명꼴로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니 놀랄 일은 아니다.

무엇을 도와줄까 물었다. 변비가 심하다며 자두 주스가 필요하다고 한다. 자두 주스를 전해

리니 소파에서 자다가 나온 모습이였다. 얼굴이 더 수척해졌다. 병원에 가보라는 말만 남기고, 나는 아내와 마우이섬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그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다. 따뜻한 수프를 좋아하는 것이 생각나 컵라면 한 상자를 구매해 가지고 갔다. 그런데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다.

며칠 후 동부에서 왔다는 그의 동생을 주차장에서 만났다. 그는 형을 병원에 입원시켜 급주와 금연 치료 중이며, 재활 치료가 끝나면 동부로 데려갈 것이라고 했다. 고양이들은 동물보호협회 차가 와 데려갔다. 무려 33마리. 도주했던 두 마리의 고양이는 아직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청소 팀이 와서 집 안을 청소했다. 집을 팔 것이라고 한다. 그가 동부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몇 주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다.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고집할지 모른다. 그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주며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냐고 했더니 병동식 품을 사다 마이크로 오븐에 데워 먹는다고 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먹은 것이 며칠 전이라고 한다. 그는 음식은 먹지 않고 술 마시고 담배만 피우는 것이 분명했다. 핏색이 얼굴에 주름도 많고 수염이 덩수룩했다. 언뜻 보기에도 그는 영양실조 상태임이 틀림 없었다.

집에서 버섯 수프를 끓여 컵에 담아서 가지고 갔다. 그는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본다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토마토와 버섯 수프를 번갈아 만들어서 가져다주었다. 하루는 버섯 수프를 가지고 갔는데 그가 현관에 없었다. 벨을 누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스시 식당	버지니아 상가건물	디시 유명 델리	Beer & Wine Shop	상가
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의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아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식당 자리	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의 \$218,000	사무실	Beer & Wine Shop	상가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에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	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의 52만불, 8백만불
창고	단독 건물	사무실	콘도	상가
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임대 9000 SF, 헌트, 버지니아	에난데일 최고의 상권, 2500 SF 식당, 카페, 맥주 전문점하면 좋은 자리 임대 문의 바람	워싱턴 디시,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	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웹그랜얼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발티모어상업건물 (임대수입) 1층식당+2층+3층아파트, 1백1십만불

주 택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투자 컨설팅

사업체

주재원 랜딩 서비스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지

쓴소리 반겼던 육영수 여사... 정치 얘기엔 "대통령 하실 일"

“사모님!” “작!” “사모님!” “컱!”

50년 전인 1974년 8월 15일 한낫 서울 대병원 응급실. 문세광의 총탄을 맞고 실려 온 육영수 여사를 살리려고 양 발목을 부여잡고 절규하다 사실상의 임종(臨終)을 지켜본 34세 청년이 있었다. 1971년 9월~74년 8월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육 여사를 수행했던 김두영(84)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문명의 그 날을 마치 어제처럼 기억했다. 흑자는 그의 회고를 여사에 대한 '선택적 기억'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엔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다. 품격있는 영부인상이 유달리 목마른 시점에 그를 만났다.

영면하시던 날, 대통령과 꺼안고 통곡

- 여사 별세 50주년입니다. 그날을 회고 해주시죠.

“그날은 비번이라 광복절 29주년 기념식 중계를 집에서 TV로 보는데 갑자기 화면이 꺼져요. ‘무슨 일이 냐?’ 하는데 청와대에서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전화가 왔어요. 바로 달려갔더니 간호사가 침대에 누운 육 여사가 숨을 누르는 모습이 보여요. 간호사가 날 보더니 ‘환자 다리 들어 올리세요’ 하는 거예요. 피가 쏟아지니 지혈하려고 그런 거죠. 급히 버선 신은 두 발목을 붙잡고 치켜든 채 안고 서서 ‘사모님, 사모님’ 외쳤는데 눈을 감은 채 가래 끓듯 ‘컱!’ 소리만 내세요. 그때는 다들 ‘사모님’이라 불렀죠. 2-3분 그러고 있는데 의사들이 달려와 수술실로 여사를 모시고 갔어요. 그때 간호사가 여사의 총탄 맞은 이마에서 튀어나온 손톱만 한 뾰족각과 반지를 건네주더군요. 주머니에 넣고 복도에 서 있는데 대통령이 들어 오셨어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원래 검은 얼굴이 핏기가 싹 가시고, 온통 셋노란 거예요. 저녁 7시쯤 여사가 운명해 유해를 청와대에 운구했는데 대통령과 자녀들이 벌써 상복을 입고 서 계시더군요. 눈물을 못 참고 울고 있는데 누가 내 목을 와락 안고 대성통곡을 해요. 돌아보니 대통령이야. 둘이 꺼안고 마구 울었어요. 김정렴 비서실장이 옆구리를 치면서 ‘각하 모시고 이러면 어떡해’ 해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통령을 집무실로 모셨어요. 그때 여사 모신 관이 실은 여사 모친 이경영 여사를 위해 준비해둔 관이었죠. 관에 뾰족각을 넣고, 반지는 유족에 돌려드렸어요. 오판로 기억하는데 비싼 반지는 전혀 아니었죠.”

- 힘없고 어려운 국민에 유난히 따스했던 영부인으로 기억되는데요.



서울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만난 김두영 전 비서관은 저서 『77』에서 본 인간 박정희, 인간 육영수를 통해 두 사람의 인간적 면모를 생생히 전했다. 그는 “내가 세상 뜨고 나서 혼백이 있다면 두 분을 가장 먼저 뵈고 싶다”고 했다. 왼쪽은 그가 육영수 여사 지시 집행내역을 쓴 경리장부. 김현동 기자

약자 챙기기가 일상, 국정 개입 전무
옷 손수 지어 입고 딸 예복으로 써
시중 대통령 비싼 귀 열고 다 들어
특활비 전용·선물 논란? 상상 못해

“그때 세간에 ‘어려운 일 있으면 대통령보다 영부인한테 편지하라’는 소문이 났어요. 대통령에 보낸 편지는 민정수석실에서 스크린하지만, 여사는 직접 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니까요. 박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1961~63년)일 때부터 여사에 편지가 왔을 겁니다. 많을 땐 하루 40통씩 오는 데 저와 비서 2명이 편지를 전부 뜯어 보고 내용을 발췌한 뒤 원본을 붙여 여사께 보고합니다. ‘무슨 자리에 취직시켜달라’ ‘용자해 달라’는 건 빼고요. 여



사가 저녁때 그걸 다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면 ‘○○ 할머니께 쌀 한 가마 보내주세요’ 같은 지시가 내려와 있어요. 특별한 사안은 직접 인터폰으로 지시 하구요. 편지가 적게 오는 때도 있는데 그림 ‘왜 없지?’ 하세요. 그게 민심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 시끄러우면 편지가 늘고요. 서울 서부경찰서 말단 순경의 사연이 기억납니다. 형편이 어려워 단칸방에서 순경과 부인, 시아버지가 함께 자요. 남편이 당직 서는 밤이면 머리가 잘 곳이 없어 부뚜막에서 쪼그리고 자는 거예요. 영부인이 그 편지 보고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방 하나 더 얻게 30만원 보내주세요’라고 하셔서 내가 직접 돈을 전달했죠. 그 때로선 큰돈입니다.”

‘여배우 염문설’도 보고 가능했던 청와대
- 생전의 육 여사는 ‘청와대 야당’으로 불렸는데요.

“대통령 내외가 저녁밥 먹자고 자주 부르셨어요. 찬이라곤 멀쩡히 말린 콩치 같은 간소한 식단에요. 그때 민심을 전하죠. 한번은 ‘반체제 시인’ 김지하씨 두고 말이 많은데, 얘기 들어보면 불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그래?’라며 고개를 끄덕해요. 나랑 함께 여사를 모신 라운실 비서는 대통령에게 ‘모 여배우와 연애하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라고도 했

어요. 대통령은 ‘아시아 영화제 참가자들 초청 행사 때 그 배우와 악수한 기억 밖에 없는데’ 하셨을 뿐 전혀 화를 내지 않았죠. 또 한 번은 고려대에서 반정부 활동하는 조모 군이 ‘농활 가니 지원해달라’고 편지를 했길래 내가 직접 돈을 주면서 ‘왜 공부 안 하고 데모만 하나. 성과도 없고 시민들만 불편하지 않나. 차라리 농활 가서 농민들에게 박정희 정권 안 되겠으니 심판하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놀라면서 ‘그래도 괜찮습니까?’ 하길래 ‘해라. 청와대 비서관이 그리 말하라고 했다고 하라’고 한 일도 있어요.”

- 박정희 청와대 비서관이 그런 말도 할 수 있었습니까.

“박 대통령 내외는 도량 넓은 분들이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고마워하세요. 그러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 특히 육 여사는 당신을 추켜올리는 말을 하면 바로 ‘마음이 없는 얘기하지 마라’고 하세요. 듣기 싫은 얘기를 듣기 싫어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 전 영부인은 비선 의상으로 특별비 전용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1973년 1월에 하와이 이민 70주년 행사가 열려 큰 영애(박근혜)가 대통령 특사로 갔는데, 내가 수행했어요. 한복을 5~6벌 갖고 갔는데 전부 육 여사 입던 옷들이라 놀랐어요. 여사가 손수 재봉틀을 돌려 기장을 맞춰놓고 ‘행사 별로 무슨 무슨 옷 입으라’고까지 적어줬어요. 여사 옷은 전부 저렴한 국산 옷감을 손수 디자인해서 가까운 양장점에 맡겨 만든 것들이에요. 양장점이 알려지면 손님들 몰릴까 봐 이름도 안 밝혀요. 백도 전부 국산만 들고 다녀요. 큰 돈 들어갈 일 없으니 특별비 논란이 날 수가 있었어요.”

- 전 영부인은 해외 출국 행사에서 남편보다 앞서 걸어 구설에 올랐는데요.

“육 여사는 대통령과 함께 한 행사에는 손도 안 들었어요. 동선도 늘 대통령 두세 발짝 뒤죠. 유튜브 동영상 보면 다니와요. 본인만의 일정엔 경호도 일체 못하게 하고 나만 대동해요. 한번은 북한이 뻘히 보이는 강화도에 가시는데, 격정돼 경호실에 부탁해서 권총을 받아 가려 했어요. 여사에게 보고하자 ‘평소대로 하라’고 해 결국 못 가져갔죠.”

- 현 영부인은 ‘명품백 선물’ 논란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는데요.

“육 여사는 늘 청와대에서 손님들을 접견하는데, 선물 가져온 이를 본 적이 없어요. 아예 안된다는 걸 다들 알고,

또 만나는 분들이 수준 있는 분들이니 불상사 날 일이 없죠. 양주동·박목월·봉두완씨 등 교수·작가·인문인 만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자주 들으셨어요. 그 분들이 책 들고 오신 건 봤죠.”

- 영부인들의 인사 개입 논란도 끊이지 않는데요.

“육 여사 추천으로 누군가 장관, 의원이 됐다면 다 알려졌을 텐데, 그런 일 기억나는 게 전혀 없어요. 여사한테 오는 전화는 나나 여비서가 다 받는데 주로 양희회 멤버들과 통화하시고, 친한 여성 성악가 한 분이나 전화가 오지, 장관·의원이나 그들 부인과 통화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육 여사,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 딱 2번

- 요즘은 영부인이 여당 대표에게 문지도 보내는데요.

“육 여사는 약자들 민원을 들어주고 ‘이런 민심이 있다’고 전할 뿐, 정치엔 ‘대통령 하실 일’이라며 한치도 개입 안 했어요. 내가 여사를 수행한 3년 동안 그분이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하는 거 딱 두 번 봤습니다. 한번은 ‘정종택 비서관(새마을 담당) 연결해 주세요’였는데 새마을 양장 행사 참석 관련해 질문이 있어서였어요. 또 한 번은 ‘김성진 공보비서 대주세요’였어요. 그날 조간에 ‘박 대통령이 ○○ 지역을 시찰했다. 김정렴 비서실장과 박종규 경호실장이 수행했다’는 1단 기사를 보시고 그런 거예요. 여사가 김 비서관에게 ‘대통령 동정 기사 보면 밤낮 김 실장과 박 실장이 수행했다고만 나오는데, 국민들 지켜주시지 않겠나. 앞으로는 수행한 다른 분들 이름도 넣으면 좋겠다’고 해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 뒤로는 두 실장 대신 ‘○○ 장관이 수행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바뀌더군요.”

- 전 영부인은 대통령 전용기로 타지마 할을 찾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당시는 여사는 커녕 박 대통령도 전용기가 없어 일반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갔어요. 73년 큰 영애가 하와이 갈 때도 KAL기를 일반인들과 타고 갔죠. 내가 수행했는데 기장이 ‘지금 이 비행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박근혜 양이 타고 있다’는 방송을 한 게 기억나요. 영부인의 처신은 간단합니다. 육 여사처럼 상식에 맞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혜롭게 하면 돼요. 또 여사는 사람을 쓸 때 오랜 기간 뒀됨을 지켜본 뒤 썼기에 측근 논란도 전무했어요. 영부인에게 이런 마음 가짐이 없다면 제2부속실 10개 만들어 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강찬호 논설위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극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리지몬드 페넌슐라 상담안영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시 설

언론인·정치인 전방위 통신 조회... 검찰이 불신 키웠다

검찰이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가입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와 야당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검찰은 “적법한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언론단체와 야당은 이번 통신 정보 조회 대상이 3000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확한 인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검찰이 통신 정보를 조회한 시점은 지난 1월인데 이달 초 야당 대상자에게 통신 조회 사실을 통보한 점도 문제다. 검찰 입장에서 법적 기한은 지켰다지만 7개월이나 늦장 통보할 사안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통신의 비밀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사생활 보호의 근간이며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범죄 수사라는 공익 차원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신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또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이번 통신 정보 조회는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성남시 대장동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검찰에 그 많은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의 통신 정보가 꼭 필요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구체적인 통화 내역까지 확인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사건 피의자나 핵심 참고인과 통화한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 가입자 조회를 했다는 설명이다. 그렇더라도 통신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검찰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기자의 취재원 정보까지 검찰이 알게 되면 취재 활동 위축과 언론 자유 침해도 우려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인의 영장 없는 통신 자료 제공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었다.

정치권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여당은 검찰을 감싸기에 급급한 반면, 야당은 “초대형 통신 사찰”이라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부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을 때와 정반대 모습이다.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다고 논리가 달라지는 ‘내로남불’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비슷한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과도한 통신 조회에 대한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검찰 “적법” 해명에도 통신 비밀 침해 논란 확산 7개월 뒤 늦장 통보도 문제, 제도 개선 서두르길

금메달 안세영의 작심 폭로, 정확한 진상 조사부터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셔틀콕 여제’ 안세영(22·삼성생명)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표팀 운영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릎 부상을 참으며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진상을 밝히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안 선수는 금메달을 딴 직후 열린 기자회견과 개인 SNS 등을 통해 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 방식, 국제대회 출전 연령 27세 제한 관련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금메달의 기쁨은 잠시였고, 아쉬움과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토로한 팬이 적지 않다. 안 선수는 지난해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결승 당시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당시 첫 검진에서 오진이 났는데 협회가 선수 보호에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대표팀과 같이 가기 힘들다”는 자신의 발언이 국가대표 은퇴 시사로 해석되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은퇴가 아니라 선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것”이라고 SNS를 통해 해명했다. 협회와 감독을 거론하면서 “권력보다는 소통에 대해 언젠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공론화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안 선수는 “배드민턴도 양궁처럼 체계적이면 좋겠다”면서 선수 지원·육성을 위한 협회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배드민턴 대표팀 은

영이 그동안 국제대회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복식 위주였고 단식은 소홀히 했다는 게 안 선수의 인식이다. “자유란 이름으로 선수를 방임했다”는 안 선수의 지적에 대한 배드민턴협회 측은 “그동안 몰심양면으로 지원했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하지만 협회는 2018년 해외 대회에 나가면서 선수 6명은 이코노미석을, 임원 8명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구설에 올랐다.

안 선수의 이번 문제 제기를 일축하지 말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 메달 색깔에 연연하던 기성세대와 달리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는 올림픽에 도전하는 과정 자체에 큰 의미를 둔다. 소통을 중시하고 절차와 공정을 강조하는 젊은 세대의 문제 제기엔 귀 기울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논란에 대통령실까지 진상 조사를 약속했다. 다만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계 비리 근절을 지시했으나 흐지부지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정확한 진상을 가려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배드민턴협회는 물론 연간 4800억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는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에 걸쳐 낡은 운영 방식이나 시스템이 드러나면 지도부 인사를 포함해 혁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갈등 금메달’, 보수 vs 진보



김승현의 시사각각 時視各角

벽중 같은 반감을 갖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얘기가.

최근 정치권의 상황은 한국 사회 갈등의 ‘알파와 오메가’를 보여준다. 노란봉투법은 여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도 아랑곳없이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4법, 25만원 지원법도 여야의 갈등이 첨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클라이맥스로 치달을 것이다.

‘갈등 공화국’ 한국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한 집단 갈등은 무엇일까. 다음 중 당신의 선택은? ①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②경영자와 노동자 ③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④정규직과 비정규직 ⑤여성과 남성 ⑥고령자와 젊은이 ⑦진보와 보수 ⑧수도권과 지방 ⑨기존 주민과 이주민 ⑩대기업과 중소기업.

딱 하나를 고르기 어렵지만, 10개의 선택지 중 1위는 ⑦번이었다. 시민들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국민 3950명(19~75세)을 면접 조사해 최근 발간한 ‘사회 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2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3위는 경영자와 노동자의 노사 갈등이었다.

‘갈등 금메달’의 위세는 압도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또는 여당과 야당)의 갈등은 30년 넘게 1위를 지키고 있다. 1987년부터 수년 주기로 실시된 비슷한 조사에서 한국 사회 최악의 갈등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10년 뒤 ‘더 심각해질 갈등’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쯤 되면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2024 파리 올림픽까지 10연패를 기록한 한국 여자 양궁 단체팀을 능가하는 ‘난공불락(難攻不落)’ 아닌가.

올림픽 승전보를 심기 불편해지는 조사 결과에 빗대는 게 어불성설인 걸 안다. 하지만 파리의 태극전사들이 전하는 메달 소식에 국민이 열광하는 와중에도 극한 갈등을 멈추지 못하는 여야 정치권에 혀를 내두르는 심정으로 불경(不敬)한 비유를 감행했다.

보고서가 분석한 갈등의 실상은 들여다볼수록 심각하다. 시민들의 답변은 공감함을 넘어 노파심을 불러일으킨다.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 및 지인과는 “술자리를 함께할 의향이 없다”(응답자의 3분의 1)고 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이와는 “연애 및 결혼할 의향이 없다”(응답자 10명 중 6명),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할 의향이 없다”(응답자 10명 중 7명)는 답변이 과반이다. 다른 진영의 사람에게 집단결

여야가 표출하는 목소리에선 타협의 신호는 포착되지 않는다. 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방·확대하는 방송법안에 여야 모두 “공영방송 장악 음모”라고 상대를 비난한다. 노란봉투법에 대선 “불법 파업 조장법”(여)과 “노동삼권 보장법”(야)이라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다. 25만원 지원법은 “협금살포법”(여)인가, “민생회복법”(야)인가.

보수와 진보, 집단 갈등 심각도 1위 10년째 여자 양궁처럼 ‘난공불락’ 내 편 판단 맹종하는 악순환 위험

극단 갈등은 확대재생산을 거듭할 것이다.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와는 술자리조차 없다는 사람이 33%가 넘고, 절반 넘는 이들이 공론의 장에 참여해 함께 고민하거나 상대편 의견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다. 많은 이가 내 편을 생각을 내 판단으로 삼을 공간이 큰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다. 결정의 논리와 기준이 오로지 ‘내 편(便) 목소리’니, 판단(判斷)력이 아니라 ‘편단(便斷)력’으로 부르는 게 맞다.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국회 입법은 물론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도 내 편의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바라본다. 방송통신위원장을 근무 시작 하루 만에 탄핵하고도 야당은 덤덤하고, 대통령실은 그걸 북한 오물 풍선에 빗대 “오물 탄핵”이라 혹평하는 싸움이 반복된다.

갈등과 ‘편단’의 악순환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문득 편(便)이라는 한자가 똥·오줌을 의미하는 ‘변(便)’으로도 쓰인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합리적인 시민 사회의 판단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내 편만 좇아가는 매우 지저분한 미래에 도달할 것이라는 복선 같아서다. 사회디렉터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55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www.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국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aquaviwater.com



\$1만 내시고 아쿠아비 정수기를 설치하세요!

건강한 물을 월 \$22에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1 첫 달



불만족시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철회해 드립니다.

NO 디파짓·설치비·무상 필터교환·AS

*친구에게 추천해 주시면 비타민 샤워필터 3개(\$60 상당)를 드립니다 *

언더싱크형 정수기

미네랄수 \$22 월 (Tax 포함)

알칼리수 \$27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대리석 타공시 \$50 별도

냉·온 정수기

Refurbished

미네랄수 \$25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0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New

미네랄수 \$28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3 월 (Tax 포함)

등록비 \$50 별도
*3년 의무 사용



알칼리수

아쿠아비의 약알칼리 환원수 필터는 미네랄과 활성수소가 풍부한 물을 생성하여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물맛이 좋습니다.

무료 설치
누구나 손쉬운 필터 교체
SAVE MONEY



미네랄수 \$199

알칼리수 \$249



미네랄수 \$179

알칼리수 \$219



미네랄수 \$199

알칼리수 \$239



미네랄수 \$279

알칼리수 \$319

아마존과 월마트 온라인에서 판매중 amazon Walmart

간편 설치

비타민 샤워필터



피부 미용을 위해
비타민으로
샤워하세요!
아토피, 녹물,
염소 제거에도
좋아요.

\$20

6,000여 가정, 사무실, 식당, 교회, 병원,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 등에서 사용중
(Northside Hospital,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아틀란타 천주교회, 몽고메리 현대 중공업, 제주 사우나, 뉴저지 한인회, 뉴욕·뉴저지 전지역 파리바게트, 뉴욕중앙장로교회, 뉴욕 중앙일보 외)



워싱턴 디씨 (VA/MD)

571.677.2555

www.aquaviwater.com

뉴욕
뉴저지

201-258-3404 / 917-410-2030
776 Grand Ave., Ridgefield, NJ 07657

조지아
알라바마

404-496-6777
3741 Venture Dr., #310, Duluth, GA 30096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Wednesday, August 7,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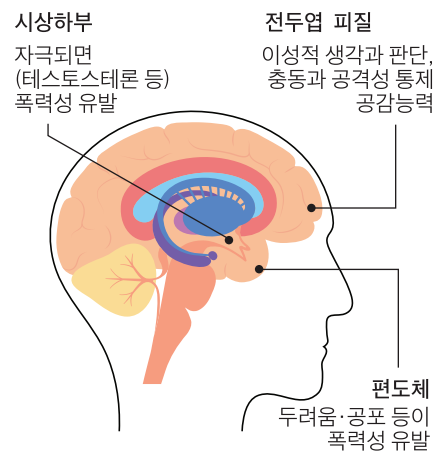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폭력은 원초적 본능, 보상중추 작동 안 되게 훈육해야

폭력성, 두 돌 무렵 최고조에 달해
'이익보다 손해 크다' 인식 심어줘야

성욕·권력 등 추구 상황서 폭력 발현
전두엽 기능 떨어져도 수시로 행사
폭력 본능, 지혜 발휘하면 관리 가능

폭력을 관장하는 뇌



'호모 비오랑스(Homo Violence, 폭력적 인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로제 다룬이 '폭력에 의해 정의되고 폭력으로 구조화된 인간'이라는 의미로 명명한, 호모 사피엔스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인류 최초의 상징적인 살인자로 불리는 성경 속 인물 카인이 신의 사랑을 받는 동생 아벨을 질투해 살해한 사건을 통해 '태초에' 폭력이 있었고, 문명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인종 말살과 테러리즘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폭력: '폭력적 인간'에 대하여』).

폭력 가해자 남성이 여성의 4.3배

폭력성은 직접 보행을 시작한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되는 과정에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진화시킨 원초적 본능이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각인된 상

폭력과 학대의 종류와 특징

- 신체적 폭력
몸이나 도구를 사용해 타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행위
- 성(性) 폭력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강압적으로 하는 성행위
- 정서적 폭력
상대방이 멍청하고 쓸모없다고 느끼도록 하는 말과 행위
- 심리적 폭력
협박으로 공포를 유발해 상대방을 통제하는 행위
- 영적(종교적) 폭력
신앙을 악용해 상대방을 조종·통제·지배하려는 행위
- 문화적 폭력
상대방의 문화·종교·관습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 언어적 학대
말이나 글로 상대방을 해치는 행위
- 경제적 학대
상대방 자금을 동의 없이 통제하고 악용하는 행위
- 방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방치

자료:폭력예방프로그램(Violence Prevention Initiative), 2014



태로 태어난다. 선사시대 인류의 발자취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21세기 현대인에게서도 호모 비오랑스의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2016년 스페인 라나다대학 생태학 호세 마리아 고메즈 교수팀은 지구촌 1024종의 포유류를 대상으로 동족이나 영아 살해율을 비교한 논문 '인간의 치명적 폭력에 대한 계통발생적 뿌리'에서 인류의 살인율이 포유류 평균보다 7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Nature, 538(7624):233-237).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연수심의 폭력 범죄가 지구촌 곳곳에서 쉬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다.

생존본능과 이기심이 발화시키는 폭력성은 딱히 배우지 않아도 체화(體化)된 원초적 본능이다. 폭력을 본 적이 없는 아기도 화나면 악을 쓰고 물건을 던지는 식의 폭력을 행사한다. 실제 인간

의 폭력성은 두 돌 무렵 최고조에 달한다. 이때부터는 훈육을 통해 '폭력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지속해서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 성장하면서 폭력성을 억누르는 힘이 생긴다. 전쟁, 재난 등 무정부 상태가 되면 누구나 순식간에 폭력성이 발동해 방화·약탈·살인 등을 저지를 정도로 본능의 힘은 강하다.

통상 폭력 범죄는 남성이 많이 저지르는데 특히 살인, 상해, 강도, 협박, 공갈 등의 강력 범죄자 비율이 높다. 2021년 국내 폭력성 강력범죄 수감자도 전체 23만2001명 중 남성 18만7469명, 여성 4만3127명(18.6%)이다. 흉악한 강력범죄의 여성 비율은 살인 19%(147명), 강도 13.1%(100명), 방화 17.6%(151명)로 간과할 수 없는 숫자다(「범죄분석통계」, 검찰청). 고령사회가 되면서 한국의 노

인 범죄율도 매년 증가해 2020년 15.8%, 2021년은 17%를 차지한다.

이처럼 폭력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인류가 공유하므로 방지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폭력이 전개될 위험이 상존한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폭력성의 본질을 알고 촘촘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폭력은 의식주, 성욕, 착취, 권력, 신념 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뇌의 폭력 회로가 작동하면서 나타난다. 예컨대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편도체는 이를 '위협'으로 감지하고 시상하부에 전달해 폭력을 유발한다. 하지만 이때 이성적인 전두엽(앞쪽 뇌)이 폭력을 쓰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폭력 욕구는 억제된다(그림 참조).

황세희 연세암병원 암지식정보센터 진료교수
▶ 2면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세 차례 재발한 난치성 직장탈출증? 미니로봇 수술로 말끔히 해결

최소침습 수술의 진화

의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발전을 거듭한다. 수술 분야에서는 최소한으로 절개하면서 정밀한 동작을 수행하고, 기존엔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위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최소한의 0.5~1.2cm 크기의 구멍만 뚫고 수술기구를 넣어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 이 수술기구에 로봇팔을 적용해 콘솔에서 조종하는 로봇 수술이 도입된 배경이다. 이렇게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소침습 수술'은 이미 수술 분야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소침습 수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리브스메드가 복강경 수술 기반에 로봇 관절을 적용해 개발한 수술기 아티센셜을 통해서다. 이 수술법은 의료계에서 '미니로봇 수술'로 통한다. 그리고 최근 난치성 재발 직장탈출증 수술에 처음으로 적용돼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한솔병원 대장항문외과 이철승 진료부장이 난치성 직장탈출증 환자에게 아티센셜을 이용한 미니로봇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한솔병원]

골반에 쉽게 접근, 섬세한 수술 장점

한솔병원 대장항문외과 이철승 진료부장은 최근 직장탈출증이 재발해 찾아온 남성 환자 정모(30)씨에게 미니로봇 수술기인 아티센셜(ArtiSential)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수술했다. 이번 수술은 세 번이나 재발한 난치성 직장탈출증 수술을 미니로봇 수술기구를 이용해 성공한 최초 사례다.

정씨는 2012년부터 직장탈출증 증상으로 회음부접근술 및 복강경 수술을 세 차례 받은 바 있었다. 정씨는 수술 후 대변 재발했고, 직장완전탈출증상과 변실금 증상을 보였다. 이철승 진료부장은 정씨의 직장탈출증에 아티센셜을 이용한 복강경 복부접근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 이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항문을 통해 직장 벽이 항문 밖으로 돌출되는 직장탈출증 수술은 접근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수술법으로 나뉜다. 복강을 통해 접근하는 '복부접근술'과 항문 주변을 통해 직장의 일부를 제거하는 '회음부접근술'이다. 이 중 회음부접근술은 재발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65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복부접근술과 회음부접근술의 재발률은 각각 6.1%, 16.3%로 큰 차이를 보인다.

복부접근술은 수술기구를 골반에 접근시킨 뒤 직장을 당겨 인공막으로 막아주는 방식의 수

“아티센셜 이용 복강경 복부접근술 환자 통증 적고 재발 위험도 낮아 수술 바로 다음 날 일상생활 가능”

술이다.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재발 위험이 작다. 특히 아티센셜을 이용하면 좁고 깊은 골반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경을 피해 인공막을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진료부장은 “두 팔이 동시에 자유롭게 작동하는 아티센셜 미니로봇 수술기구를 직장탈출증 수술에 적용해 섬세하고 정교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며 “특히 골반 내 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시야를 확보해 보다 안정적이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후 환자의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수술을 받은 정씨는 “이번 복강경 미니로봇 수술을 받고 난 후 이전에 받았던 세 차례 수술과 비교했을 때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훨씬 편안했다”며 “수술 후 바로 다음 날 인데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았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로봇 이상 효과, 비용은 복강경 수준

아티센셜 미니로봇 수술이 각광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로봇 수술 수준의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면서도 비용은 복강경 수술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복강경 수술기구는 일자형에 집게가 달린 구조다. 근데 아티센셜은 로봇 수술에나 적용되던 다관절 구조를 접목했다. 이중 관절이라 360도로 자유로운 동작이 가능하다. 게다가 기존 로봇 수술에서는 구현하지 못하는 '조직을 만지거나 집었을 때의 감각'이 수술자 손끝에 그대

로 전달된다. 민감하고 복잡한 수술일수록 이 감각은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서도 로봇 수술처럼 수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아티센셜이 복강경과 로봇 수술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단점은 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이 진료부장은 아티센셜 수술이 '미니로봇 수술'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 “로봇 수술기의 핵심 개념은 조종부 움직임을 동작부가 그대로 구현한다는 것”이라며 “사람의 손동작과 엔드툴(수술기구의 끝부분)의 동작이 100% 같다는 것이 로봇 수술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아티센셜 역시 의사가 잡는 조종부와 엔드툴의 동작이 100% 같기 때문에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다만 로봇 수술기는 동작부와 조종부가 분리된 거대한 기계지만, 아티센셜은 동작부와 조종부가 합쳐져 있는 핸드헬드형 타입”이라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

▶ 1면 '폭력'에서 이어집니다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 치매 환자,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등은 이런 합리적인 판단이 안 돼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다.

폭력을 쓰는 방식은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난다. 남성은 총동적으로 힘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여성은 폭력을 신중하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표 참조> 대상도 주로 여성, 어린이, 애완동물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아동학

대 수치만 보더라도 가해자 중 83.7%가 부모인데 친부가 45.1%, 친모는 35.6%로 남성이 여성의 1.27배다. 일반적인 폭력 가해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4.3배나 많다는 사실과 대조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살인을 하고 싶어서”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 사건, 귀가하던 낯선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러차기' 범죄 등으로 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합리적인 법·원칙 통해 다스려야

인간은 폭력적인 호모 비오랑스이자 지혜로운 호모 사피엔스다. 폭력 본능도 합리적인 지혜를 발휘하면 적절하게 다스릴 수 있다. 범죄자도 감옥살이는 싫어한다. 사회제도가 제대로 작동해 폭력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면 사회 구성원들의 폭력 충돌은 줄어들 것이다.

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 폭력으로 후과(後果) 없는 이익만 얻게 되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해 쾌락과 만족을 느끼면서 그 사실을 기억한다. 일단 이런 보상중추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더 큰 범죄를 갈망하고 저지르기 쉽다. 고화질의 CCTV와 유전자 검사, 안면 인식 기술 등 첨단 과학을 동원해 범죄 검거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흔히 '세상은 점점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합리적인 원칙과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범죄는 현저히 줄기 마련이다. 유럽에서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이 중세 시대에 비해 현대의 법치 사회에서 35분의 1로 감소했다는 사실은 단적인 예다.

정부가 강력범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민심에 얼마나 부응할지 지켜볼 일이다.

황세희 연세암병원 암치정정보센터 진료교수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53.9%	42.9%	2.3%	0.0%
대우총동	당뇨	노화시각	주의	나쁨		대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성,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Sciatica

척추관 협착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러기 힘들다

뒤로 피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뭉치

발목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힘이 없어 잡지 못함

방아쇠

피지 않음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혜민한의의원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 / NerveControlSNC.com

일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도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휴식 때 심장박동수 1분간 60회 가까이 낮추면, 심혈관 질환 위험 똑

안정 상태일 때 심박수 관리

내 심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생체 신호가 있다. '안정 시(휴식기) 심박수'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1분간 뛰는 심장박동수(bpm)를 측정하는 것이다. 스마트 워치·링 같은 웨어러블 기기들이 보편화되면서 손쉽게 알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 사용자면 스마트폰에 기록되는 안정 시 심박수 추이를 살피고 체중처럼 관리하길 권한다. 생활습관과 신체 상태에 따라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지하면 건강 습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된다.

일반 성인의 안정 시 심박수 범위는 60~100bpm이다. 몸 상태가 좋을수록 휴식할 때 심박수는 느린 경향이 있다. 안정 시 심박수가 60bpm 가까이 낮을수록 심장의 에너지 효율이 높음을 뜻한다. 한 번의 박동으로 더 많은 혈액을 내보낸다. 심장이 덜 자주 뛰면서도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신체 곳곳에 충분히 공급한다.

반대로 안정 시 심박수가 높으면 몸이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다. 휴식 상태에서도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심장에 부담이 가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커진다.

80회 넘으면 당뇨병 위험 2.2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안정 시 심박수와 당뇨병의 연관성을 장기간 추적해 지난 2월 발표했다. 성별 관계없이 심박수가 80bpm 이상이면 60~69bpm인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약 2.2배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다. 심박수를 5bpm 이상 낮춘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20~40% 감소하는 것으로 확



인됐다. 40세 이상 남녀 8313명을 18년간 조사해 분석했다. 안정 시 심박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경각심을 가지면 당뇨 예방과 조기 발견에도 도움이 된다.

심박수가 높은 건 불안·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과도 연결된다.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적정 수준으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신체 반응이기 때문이다. 대한스트레스학회의 『스트레스 연구』에 실린 '한국 성인의 안정 시 심박수와 우울 관계'(2021)에 따르면 안정 시 심박수가 90bpm 이상인 그룹의 우울 위험은 60bpm 미만인 그룹보다 남자의 경우 3.2배, 여자는 1.7배 높

았다. 만성질환자는 자신의 안정 시 심박수를 알고 관리하는 데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다. 미국 심장학회는 관상동맥 질환자의 심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혈압·당뇨병·비만 등 위험 요소를 관리하면서 분당 55~60회 정도의 안정 시 심박수를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안정 시 심박수를 낮게 유지하는 열쇠다. 운동이 안정 시 심박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191개의 연구를 분석한 논문(임상의학저널, 2018)에 따르면 남녀 모두에서 심박수를 유의하게 감소시킨 운동은 지구력 운동

과 요가였다. 걷기·달리기·수영, 자전거 타기 등 중간 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주 3~5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요가·명상·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연습하면 스트레스 반응에 대처하는 능력을 단련시켜 준다.

숨차고 어지러우면 병적 서맥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탈수되면 혈액 점도가 높아진다.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이 더 빠르게 뛰어야 한다. 잦은 음주는 심박수를 높인다. 알코올이 이뇨 작용을 해 탈수를 유발하고, 깊은 잠을 방해한다. 수면 중에도 심박수가 안정되지 않고 취침 시간이 불규칙하면 안정 시 심박수 상승으로 이어진다.

분당 60회 이하로 느린 맥박(서맥)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흔하다. 평상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심폐 기능이 좋으면 안정 시 심박수가 50~60bpm 정도로 낮은 경향이 있다. 운동 선수들은 일반 성인보다 훨씬 낮은 40bpm 이하로 내려가기도 한다. 미국의 수영선수인 마이클 펠프스는 안정 시 심박수가 약 38bpm이라고 알려져 있다. 심혈관 건강 수준이 높으면 심박수가 40~60bpm 정도여도 건강한 상태의 서맥으로 본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너무 낮은 심박수는 주의해야 한다. 안정 시 심박수가 분당 50회 이하로 규칙적으로 측정되나 어지럽고 숨차며 가슴이 답답하면 병적인 서맥일 가능성이 크다. 심장의 펌프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신호이므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안정 시 심박수가 갑자기 변화하는 것도 감염·탈수나 심장·갑상샘 문제, 빈혈 등의 징후일 수 있다.

이민영 기자

장년층 챙겨 먹는 단백질, 양 못지않게 종류도 중요

노년기 똑똑한 단백질 섭취법

덥고 습한 여름은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는 계절이다. 과도한 냉방 기기 사용, 열대야로 인한 수면 부족 등도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력이 쇠하기 쉬운 고령층이라면 이 시기 여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단백질은 면역력과 뼈·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챙겨야 할 영양소다.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항체를 구성하는 성분인 아미노산·인대·관절을 감싸는 근육을 만들기 때문이다. 체내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 골격근과 근력 감소를 유발해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경상국립대 의대와 매일헬스뉴트리션이 공동으로 진행한 '남해군 노쇠 위험군 고령자 대상 근력 및 근 기능 개선' 연구결과에서도 단백질 공급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연구진은 경남 남

해군에 거주 중인 노쇠 위험군 고령자 15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단백질 공급, 운동, 질병 관리로 구성된 복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력의 지표인 악력과 걷기 속도 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육 합성에 도움 주는 동물성 단백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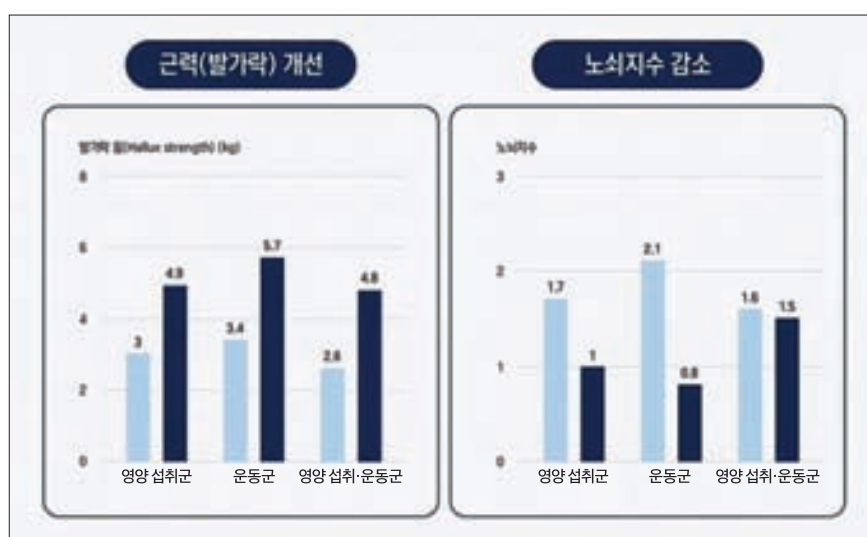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양 못지않게 단백질의 종류도 신경 써야 한다.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이다. 근육 합성 촉매제인 류신 등이 함유돼 식물성 단백질보다 근육 생성이 잘 된다. 노화로 근육이 빠져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흐물거릴 때 동물성 단백질을 챙기는 이유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며 동물성 단백질을 꺼리는 노년층이 많다. 이 같은 증상을 야기하는 건 동물성 단백질에 든

유당이다.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동물의 젖을 가공해 만들어 포유류의 당인 유당 성분(락토스)이 부글거리고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노년기에는 몸에 잘 흡수되고 속까지 편한 단백질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게 바로 동물성 단백질의 한 종류인 분리유청 단백질이다.

불필요한 유당 없앤 분리유청단백질

분리유청단백질은 불필요한 지방과 유당을 제거해 순도가 높은 단백질이다. 이로 인해 분리유청단백질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는 유당이 없다는 의미의 '락토프리(Lacto-free)' 표시가 붙곤 한다. 분리유청단백질은 원유에서 0.6% 이하의 극소량만 추출돼 프리미



충천 노인 대상 '노쇠 예방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결과. 단백질 등 영양 섭취와 운동을 통해 근력과 노쇠지수가 개선됐음을 알 수 있다. (자료=한림대학교 LINC 3.0 사업단)

엄 단백질로도 인정받는다. 흡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흡수 속도도 빠르다. 그 덕에 근육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분리유청단백질의 효과를 나타낸 연구결과도 있다. 매일헬스뉴트리션·충천시·한림대가 충천시 노인 204명을 대상

으로 운영한 '노쇠 예방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연구진은 노인들에게 12주간 분리유청단백질 20g, 류신 6g, 비타민D 40μg, 칼슘 700mg 등을 공급하고 운동을 병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발가락 힘과 노쇠지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수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말동무 해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탁,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고령층 맞춤 진료 시스템, 관절 질환 적기에 효과적 치료

병원 탐방 건강만세365병원 관절은 건강한 삶의 중심 축이다. 신체 균형을 유지하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듯 나이가 들면 관절에도 각종 문제가 생긴다.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대표 불청객이다. 적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심한 통증과 움직임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차병원 건강만세365병원장은 “특히나 노년기 관절염으로 활동량이 줄면 근육 감소로 체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 있다”며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감염병에 노출되기도 쉬워진다”고 했다.

다학제 협진으로 치료 '골든타임' 지켜
부산 건강만세365병원은 지역민의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관절, 척추, 스포츠·재활, 내과센터를 두고 검사부터 진단,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특히 관절 질환의 주요 발병 연령대인 고령층의 만족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건강만세365병원에서는 여러 과가 협력해 진단·치료 방법을 논의한다.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정을호 객원기자

다학제 협진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고령층은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해 건강만세365병원에서는 정형외과·신경외과·영상의학과·내과·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머리를 맞대고 환자별 최적의 치료 방향을 설계한다. 퇴행성 관절염과 척추관협착증을 동시에 보유했다면 어떤 치료부터 진행해야 증상 완화에 더 효과적일지 논의하는 식이다.

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며 “다학제 협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 자칫 놓칠 수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제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황사 비해 위험 간과해 장기간 오존 노출, 사망률 높아져 귀가 후 이중 세안으로 잘 씻어야

365병원의 운영 철학이다. 의료 수준이 향상됐다고 해도 마취의 위험성,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신 생활습관을 개선하거나 도수·물리치료, 그룹운동(GX), 줄기세포 치료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도수·물리치료 등이 이뤄지는 스포츠·재활센터만 해도 크기가 600㎡(약 180평)에 달하며 기구, 프로그램 종류도 다양하다. 차 병원장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 중 증상이 가장 심한 4기 환자

라도 고령이라 활동량이 적어 통증을 그다지 크게 느끼지 않는다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주사 치료를 병행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꼭 수술이 필요할 때도 최소침습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소침습 수술은 단순히 미세 절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체 조직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는 수술법이다. 차 병원장은 “최소침습 수술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임상 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리 병원 의료진은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로 최소침습 수술에 특화돼 있다”고 했다.

2015년 선도적으로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을 도입한 것도 고령층을 배려한 조치다. 그간 차 병원장은 인공관절 수술에서의 수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수혈이 감염이나 합병증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고령 환자는 젊은 환자보다 신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 위험이 큰 편이다. 현재는 최소 절개로 수술 중 출혈을 최소화하고 수술 후 철분제 등으로 혈액 생산량을 늘려 수혈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연구를 이어나가고 이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학제 협진 시스템은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일도 방지한다. 일례로 고관절 문제는 허리 질환으로 종종 오진된다. 고관절 통증을 허리 문제로 인한 방사통이라 오인한 탓이다. 실제 수년간 허리 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져 건강만세365병원을 찾아온 환자도 여럿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뒤늦게 퇴행성 관절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등을 진단받고 인공관절 치환술로 보행 기능을 회복했다. 차 병원장은 “보통 전문의

‘수술은 항상 최후의 수단’ 운영 철학
노화로 관절이 약해진 중장년층 가운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수술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라는 게 건강만세

“-병원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면 관절 내시경을 통해 찢어진 연골을 제거하거나 봉합해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일을 막는다. 절제술의 경우 2~3일 정도 입원해야 하고 수술 시간이 10~20분이다. 보행은 수술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 십자인대의 경우 전방 십자인대는 자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재건 수술을 진

인터뷰 차병원 건강만세365병원장

“야간·공휴일 가리지 않고 문 열어, 직장인도 언제든 편하게 방문”

무릎관절은 신체의 하중을 받아내고 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만큼 퇴행성 관절염이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이기도 하다. 젊은 층이라고 해서 무릎관절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최근에는 무리한 운동이나 비만 등으로 무릎관절염을 앓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차병원(사진) 건강만세365병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는 찢어진 당시에는 통증이 심해도 약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기존에 하던 운동을 이어가면 젊은 층이 많다. 그 결과 손상 범위가 넓어지고 수년 후 관절염을 앓을 수 있다.”

가 하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통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십자인대가 찢어지면 무릎 내 관절에 출혈이 생겨 부종이 발생하거나 무릎 주위에 검푸른 멍이 들 수 있다.”

행해야 하는데, 수술 후 한 달 정도 지나야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다.”

없이 진행되는 시술이라 회복이 빠르다는 점이다. 보통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 직장인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자가 골수 추출액을 사용해 거부반응이 적다는 것도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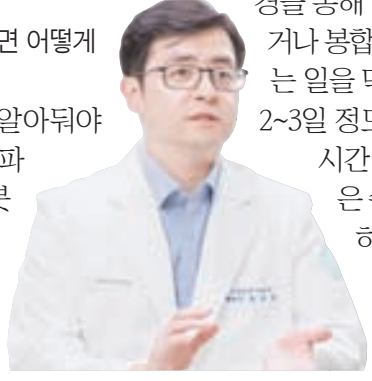
-젊은 층에서 무릎관절염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
“대표적인 원인은 반월상 연골과 십자인대 파열의 방치다. 무릎관절을 보호하는 반월상 연골과 십자인대는 스포츠 부상으로 파열될 수 있다. 문제

-상태 악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주요 증상을 알아둬야 한다.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을 때는 무릎이 붓고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릴 수 있다. 무릎을 굽힐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드는

“상대 악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주요 증상을 알아둬야 한다.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을 때는 무릎이 붓고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릴 수 있다. 무릎을 굽힐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드는

-초기 치료를 놓친 경우 어떻게 하나.
“이미 관절염이 진행됐다면 무릎 상 대별로 적합한 치료를 하게 된다. 최근 관심받는 치료법 중 하나는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치료법으로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라고도 불린다. 환자의 골반에서 채취한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다음 무릎에 주사하는 방법이다. 손상된 연골을 재생해 무릎관절의 기능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도록 돕는다.”

-무릎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점이 궁금하다.
“통증이 나타나면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병원을 찾는 게 좋다. 하지만 상당수의 젊은이가 통증을 느껴도 차일피일 진료를 미룬다. 대부분의 병원이 퇴근 이후에는 문을 닫기 때문이다. 우리 병원은 공휴일에도 문을 열고 직장인을 위해 야간 진료도 진행한다. 언제든지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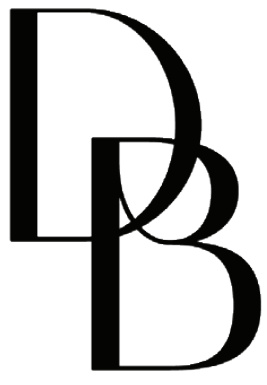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DONNA BELLA

LASER MEDSPA®

WWW.DONNABELLALASER.COM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젊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FDA 승인을 받은 최첨단 의료 장비로 당신의 10년을 돌려 드립니다.



머리→헤어 복원
Laser Hair Restoration

얼굴→피부 레이저 치료 & 기미 제거
Fractional CO2 Laser, Laser Melasma Treatment

질→질 회춘술
Non Surgical Laser Vaginal Rejuvenation
질 건조증
Vaginal Dryness
요실금
Urinary Incontinence

눈썹→눈썹 문신 제거
Eyebrow Tattoo Laser Removal

쥐젖 / 피부점 / 사마귀
Skin Tag / Skin Mole / Wart

복부→바디 콘투어링 & 체중 감량 프로그램
Laser Body Contouring & Weight Loss Program

다리 & 겨드랑이→레이저 헤어 제모
Laser Hair Removal

다리→노출 혈관 제거
Non Surgical Laser Vascular Treatments

발→발톱 무좀 치료
Laser Toenail Fungus Treatment

Open Special H. Carbon Toning
~~\$350~~ → **\$99**

- REDUCING THE SIGNS OF PREMATURE AGING
- ERASING OR FADING YELLOW/BROWN PIGMENTATION
- SHRINKING SCARS (MUST BE YOUNG SCARS) OF A SMALL DIAMETER

- REDUCING FINE LINES AND WRINKLES
- IMPROVING SKIN INTEGRITY AND RADIANCE
- STIMULATING COLLAGEN GROWTH FOR FIRMER, PLUMPER SKIN
- REDUCING OILY SKIN OR EXFOLIATING DRY SKIN

첫 상담 무료

Dr. 황지연
Jiyon Hwang-Ki, MD

BOARD CERTIFIED,
DIPLOMATE OF THE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MD 락빌

T. 301.417.4975

15200 Shady Grove Rd. Suite 108
Rockville, MD 20850

Mon ~ Fri: 8:00am ~ 4:30pm
*Saturday by Appointment

VA 애쉬번

T. 703.443.4713

21785 Filigree Ct. Suite 206
Ashburn, VA 20147

Mon ~ Fri: 9:30am ~ 6:00pm
*Saturday by Appointment

VA 페어팩스

OPENING JULY 2024

13135 Lee Jackson Hwy. Suite 205
Chantilly, VA 22033

*직원 모집: Esthetician, Receptionist, Manager 그리고 NP or PA

45~49세 환자 지속 증가... 원인은 불명

대장암 징후와 위험요소

미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인들도 미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환에 노출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대장암과 피부암이다.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천을 하지 않거나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스크린을 많이 바르면 되지만 대장암은 식습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대장암과 관련돼 미국노년협회(AARP)가 추천하는 검진 권장 사항 및 위험 요소에 대해 점검해 본다.

다른 암질환과 다르게 대장암은 특히 선진국형 암이라고 불린다. 한인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구화된 식문화 때문에 대장암 환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 전문가들은 최근 대장암의 우려되는 추세를 지적하고 있다. 50세

45세 넘으면 일단 대변 검사 받을 만
여성보다 남성, 시니어가 발병률 높아
앉아 일하는 직업도 활동 늘리면 줄어

가 넘으면 대장암 검사를 받을 정도로 시니어 질환이었는데 이제는 대장암의 발병이 젊은층으로 옮겨가고 있다.

2024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대장암은 현재 50세 미만 남성의 암 사망 원인 1위이며, 같은 연령대 여성에서는 2 번째로 보고되고 있다. 20년 전에는 이들 나이에 암 사망자의 4번째 원인이었다. 20년 전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결론이다.

미국 암협회는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대장암이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45~49세 사람들을 대상으로 후속 치료와 함께 비침습적 대변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 검사 자체를 늘려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지침이 지난 2021년에 발표됐다.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2021년 지침을 업데이트해서 5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45세에 대장암에 대한 초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진이 중요한 이유의 증거를 들면, 2024년 미국에서 15만2810명이 대장암 초기로 발견됐는데 이들은 모두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이들 초기 단계에서 암을 발견한 사람은 대부분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선별 검사가 증상을 기반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증상이 나타나면 대장암이 더 진행된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몇 가지 위험 신호가 있을 때다. 최근에 대장내시경 검사와 같은 암 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즉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증상이다.

▶대장암의 8가지 경고 신호

1. 설사, 변비 또는 대변 협착 등 며칠 이상 지속되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난다.
2. 배변을 해도 완화되지 않는 배변 충동이 계속된다.
3. 직장 출혈이다. 눈에 보이는 출혈은 단 한 번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4. 질은 갈색 또는 검은색 대변일 경우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혈액이 이런 색깔로 변해서 나온다.
5. 경련이나 복통이 심하다. 한인 60대 남성은 출근길에 경련이 심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바로 대장암 수술을 긴급으로 받은 적이 있다.
6. 몸이 쇠약해지고 피로가 심해졌다. 질환이 생기면 당연한 증상이지만 대장암 증상 중 하나다.
7.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현상이다. 대장암에 걸린 경우 신체는 정상적으로 식사를 계속하더라도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호르몬을 혈류로 방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8. 원인 불명의 빈혈이다. 직장에서 혈액이 손실될 수 있다.

▶대장암이란 무엇인가

대장에 암이 생기는 것이 바로 대장암이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일어나 대장으로 전이되는 경



대장암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젊은이 보다는 시니어가 더 많이 걸린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됐다. 특히 앉아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걸린다. 최대 50% 발병률이 높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감소는 신호일 수 있다. [빙닷컴 copilot 생성]

우리는 대장암이라고 하지 않는다.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장암은 대장의 일부인 결장이나 직장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암의 대부분은 폴립, 즉 결장이나 직장의 내벽에서 자라는 것으로 시작된다. 일부 유형의 폴립은 암으로 변할 수 있지만 모든 폴립이 암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에서 폴립을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다. 암이 폴립에 형성되면 결장이나 직장의 벽으로 자란다. 이는 점막으로 알려진 내부 층에서 시작하여 다른 모든 층을 통해 바깥쪽으로 자란다. 결국에는 혈액이나 림프관으로 자라서 림프절로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신체의 먼 부위로 전이될 수 있다.

▶알아야 할 위험 요소

미국 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에 따르면, 대장암 발병 위험은 남성의 경우 23명 중 1명, 여성의 경우 25명 중 1명이다. 개인의 위험 수준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낮을 수 있고 높을 수도 있다.

첫째 나이에 따른 위험이다. 대장암 사례의 대다수는 여전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발

생한다. 시니어가 되면서 대장암 검사를 받게 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에 50세 이하에서 증가하는 이유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여러가지 이론이 있지만 한 가지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장내 박테리아인 미생물군집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식습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인종간의 위험도 차이가 있다. 미국 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에 따르면 대장암 발병률은 알래스카 원주민, 아메리카 인디언 또는 흑인이 가장 높다. 역시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에 있어서도 인종적, 민족적 차이는 비슷하다.

셋째 성별에도 관련이 있다. 남성의 비율은 여성보다 약 33% 더 높다. 여성 성호르몬은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다. 마치 여성의 흡연 가능성이 낮은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신을 더 잘 돌보는 경향이 있다.

네째는 유전적 요소다. 대장암 환자의 약 30%는 가족력이 있다. 부모, 형제자매 또는 자녀로 정의되는 직계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가족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최대 4배 더 높다. 그 중 약 10%는 린치 증후군이나 가족성 선종성 폴립증과 같은 유전적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다.

가족 중에 이러한 질병이 있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다섯째는 염증성 장질환이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병 위험이 거의 2배 더 높다. 일부 증거에 따르면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항염증제는 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여섯째는 활동성 여부다. 움직이지 않고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최대 50% 증가한다. 하지만 다들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서 시니어가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면 그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시니어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장병희 기자

성인 자녀와 공유할 재정정보

비밀번호 말고 '둔 곳' 알려줘라

자녀가 성인이 되고 본인은 늙어가면서 자녀에게 재정 상황에 관해 어렸을 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됐다. 물론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줄 필요는 없다. 개인 재정에 관해 성인 자녀와 공유하는 것이 꼭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다.

1. **비밀번호 접근 공유:**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모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성인 자녀가 긴급 상황에서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알아내려고 노력한다고 상상해 보라. 지금은 목록을

건네주지 말아야 한다. 목록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며, 긴급 상황 시 쉽고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밀번호 목록을 손으로 쓰지 않고 타이핑하는 것이 좋다.

2. **주요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유언장부터 출생 증명서, 자동차 소유권, 가장 최근의 세금 신고서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수많은 중요한 원본 문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서는 은행의 안전 금고나 집의 방화 금고 등 매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자녀가 어디에 보관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3. **청구서 지불 방법을 설명하라:** 월별 청구서를 지불하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와 성인 자녀 모두가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청구서는 매월 자동으로 지불된다면 어느 계정에서 지불되는지 간단하고 깔끔한 방법으로 이러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4. **디지털 정보도 공개하라:** 금융 정보의 대부분은 종이나 파일 캐비닛이 아닌 온라인에 있다. 금융 정보를 전자적으로 받으면 신뢰할 수 있는 성인 자녀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삼중으로 확인하라.

5. **팁 소개하라:** 재정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전문가 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재무 설계사, 회계사, 부동산 변호사가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중 하나를 고용하는 경우, 성인

자녀가 최소한 누구인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상담사에게 자녀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정보가 논의되도록 승인되었는지 명시하고 귀하의 위임장 사본도 파일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6. **당신의 소망을 자녀에게 알려줘라:** 자신의 돈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지에 관해 자녀들은 알아야 한다. 또한 반대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미리 알 필요가 있다.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려고 계획했던 돈을 자녀가 집을 구입하거나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 장병희 기자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 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5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드 프랑스.

이날 육상 종목의 마지막 경기인 남자 100m 결선을 앞두고 9만여 관중이 숨죽인 채 트랙을 지켜보고 있었다. 선수 한 명 한 명을 소개할 땐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8명의 선수는 총성과 함께 폭풍 같은 레이스를 펼쳤다. 7번 레인의 노아 라일스(27·미국)와 4번 레인의 키세인 톰슨(23·자메이카)을 비롯한 4명의 주자가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선수도, 관중도 누가 이겼는지 알지 못했다. 경기장에 설치된 카메라는 라일스와 톰슨의 얼굴을 번갈아 비쳤다. 톰슨은 승리를 자신했고, 라일스는 두 손을 머리에 얹고 초조하게 전광판을 지켜봤다. 잠시 뒤 성조기를 든 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라일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되는 순간이었다. 라일스는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내보이며 스타디움을 돌면서 환호했다.

라일스는 이날 파리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결선에서 9초7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은메달리스트 톰슨의 공식 기록도 9초79로 같았다. 하지만 1000분의 1초까지 판독한 결과, 라일스(9초784)가 톰슨(9초789)보다 0.005초 빨랐다. 동메달은 프레드 켈리(29·미국·9초81)가 차지했다.

7레인에서 출발한 라일스의 출발 반응 기록은 0.178초. 결선에 나선 8명 중 가장 늦었다. 3레인의 켈리가 0.108초로 제일 빨랐고, 30m 구간부터는 4레인의 톰슨이 선두로 치고 나갔다. 그러나 200m가 주 종목인 라일스는 뒷심



'0.005초'에 바뀐 운명 단거리 새 황제 라일스

파리올림픽 육상 남자 100m 우승자 노아 라일스는 천식, 난독증, ADHD, 우울증 등 성장 과정의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가 됐다. 5일 100m 결선 우승 직후 성조기를 펼쳐 들고 환호하는 라일스. [신화·연합뉴스]

이 강했다. 중반부터 치고 나가 톰슨을 바짝 따라붙었다.

결국 최종 승자는 라일스였다. 일본 애니메이션 마니아인 그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에너지파' 동작으로 승리를 자축했다.

라일스는 대회 전부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지난해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100m와 200m를 모두 석권했다. 지난 6월 미국대표 선발전에서는 9초83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며 1위에 올랐다. 지난달 20일 런던에서 열린 다이아몬드 리그 100m에서는 9초81로 기록을 앞당겼다. 올림

픽 전까지 올 시즌 최고 기록(9초77)을 낸 톰슨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파리에서 또다시 개인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라일스가 생애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다.

미국은 이번 대회 전까지 남자 100m에 걸린 금메달 29개 중 16개를 따냈다. 하지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저스틴 게이틀린 이후엔 우사인 볼트(2008·12·16년)에게 밀렸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라몽 마르셀 제이콥스(이탈리아)가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라일스가 20년 만에 미국에 금메달을 안기며 자존심을 세웠다. 라일

스는 "내가 그토록 원하던 순간이 찾아왔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다"고 했다.

라일스는 육상 선수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케빈 라일스는 1993년 유니버시아드, 1995년 세계선수권 1600m 계주 금메달리스트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라일스는 소아천식, 난독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앓았다. 우울증도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이혼 후 그를 홀로 키운 어머니 케시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로 성장했다.

라일스는 "우사인 볼트를 존경하며

그를 넘어서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볼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 대회에서 3관왕(100m, 200m, 400m 계주)을 차지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3관왕(100m, 200m, 400m 계주)에 오른 라일스는 파리올림픽에서는 1600m 계주까지 4관왕에 도전한다. 볼트를 넘어설 것이라는 뜻이다.

아시아 선수 중에선 사니 브라운(일본)과 푸리폴 본슨(태국)이 준결선에 진출했지만, 결선에는 오르지 못했다. 브라운은 개인 최고 기록을 0.01초 앞당기며 9초96을 찍었으나 3조 4위로 탈락했다. **파리=김효경 기자**

끝내 오열한 김주형 "눈물 흘릴 줄은 몰랐는데"

김주형(22)이 5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의 르골프 내셔널에서 끝난 파리올림픽 골프 남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3타를 줄여 합계 13언더파 8위를 기록했다.

전반에만 버디 3개를 잡으며 메달권 근처까지 갔지만, 후반 들어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선두권에서 멀어졌다. 8위는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안병훈(33)이 기록한 공동 11위를 뛰어넘는 올림픽 남자 골프 역대 최고 성적이다. 안병훈은 파리올림픽에서는 합계 6언더파 공동 24위에 올랐다. 합계 15언더파로 막판까지 메달권

진입을 노리던 김주형은 18번 홀(파4)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티샷이 왼쪽으로 감기면서 공을 페널티 구역에 빠뜨렸다. 여기에서 결국 2타를 잃었고, 순위는 8위로 내려갔다.

김주형은 18번 홀 경기를 마치자마자 흐느꼈다. 눈물 몇 방울이 아니라 평평 우는 수준이었다.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인터뷰를 마친 뒤 공동취재구역인 믹스트존에 들어설 때까지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김주형은 "(눈물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감정적인지 몰랐다.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해도 이런 감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는 또 "골프를 시작한 뒤 이렇게 운 적이 없다"면서 "메달을 따지 못해서 운 건 아니다. 처음으로 나라를 대표한다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컸다. 아직 남자 골프는 올림픽에서 메달이 없던 만큼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런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다가 지금 터졌다"고 밝혔다. 옆에서 지켜보던 김형태(47) 감독은 "(김)주형이가 파리올림픽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국가대표로서 꼭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했는데 생각보다 그 부담감이 컸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어릴 적부터 해외에서 생활한 김주형은 주니어 시절에도 태극마크를



단 적이 없다. 일찌감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데뷔해 국내 무대에서도 될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한편 마지막 날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잡아낸 미국의 셰플러가 합계 19언더파 265타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올 시즌 PGA 투어에서 6승을 거둔 셰플러는 생애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냈다. 토미 플릿우드(33·영국)가 합계 18언더파로 은메달, 마쓰야마 히데키(32·일본)가 합계 17언더파로 동메달을 땀다. **파리=고봉준 기자**

김주형은 파리올림픽 골프 남자 최종 4라운드를 13언더파 8위로 마쳤다. 국가대표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부담감 탓에 경기 종료 후 눈물 흘리는 김주형. **파리=김성룡 기자**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플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원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d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허영만 '만화 인생' 50년... "화판 위에서 죽고 싶다"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가세가 기울어 포기했다. 여수고 3학년 올라갈 때 일이다. 5일 전남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에서 만난 허영만(75)이 돌아본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다. 1965년 만화가 김석 문하생으로 들어가 박문윤·엄희자·이향원 문하를 거쳤다. 가난 때문에 택한 만화였지만 데뷔 첫해부터 이름을 날렸다. 1974년 한국일보 신인 만화 공모전에 '집을 찾아서'가 당선됐고, 같은 해 소년한국일보에 연재한 '각시탈'이 흥행했다. 데뷔 50년을 맞은 만화가 허영만이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특별한 '종의 영웅, 칸의 서사'를 연다.



'미스터 손'은 TV 애니메이션 '날아라 슈퍼보드'로 제작돼 시청률 42.8%를 기록했다.

[사진 전남도립미술관]

일제에 맞서는 '각시탈'은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애니메이션 '날아라 슈퍼보드'는 방영 당시 시청률 42.8%를 기록했다. 청춘의 위태로운 방향을 그린 '비트'부터 도박을 낚아 이 파헤친 '타짜'도 빼놓을 수 없다. 권투·야구부터 화투·골프·관상·주식에 미식까지... 끊임없이 색다른 소재를 찾아내 우리 사회의 관심사를 주도해 온 허영만이다. 시대를 품고 매스미디어로 확장해 일상이 된 허영만의 만화 인생이 전시장에 펼쳐진다. 2015년 서울 예술의전당 최초의 만화가 개인전에 이어 도립미술관 최초다. 만화 원화

와 드로잉, '비트'를 그리기 위해 모은 패션 화보와 오토바이 스크랩 같은 취재 자료까지 2만여 점을 전시장에 풀었다.

"참 열심히도 그랬네."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며 허영만이 가장 자주 한 말이다. 그는 "50년 세월이 이렇게 갔네요. 남들은 제가 놀러만 다닌 사람인 줄 알지만, 다 그린 뒤 놀러 다녔지 평크 내고 놀지는 않았어요(웃음). 아이

들과 마누라에게 '난 정말 열심히 살았다.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 합니다"라고 말했다.

-동시대 만화가 중 가장 오래 활동하면서, 계속 정상을 지키고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저는 1등 했던 적이 없어요. 그전엔 이상무 선생님이 1등이었고, 이어서 이현세 선생이 나타났죠. 오래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비결이라면 소재

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이라까. 밥 먹다가도 생각나면 메모하고, 식당에 메모지 없으면 냅킨에 고추장 묻혀서도 적었어요."

전시장에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그의 작업실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책상 앞에 이런 메모가 붙어 있다. "생각 즉시 행동! 꾸물대지 마!"

-만화라는 매체의 장점·매력은 뭘까요. "원고지가 하얗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내 맘대로 그릴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대로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꿈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애 같은 어린 아닌가 싶어요."

-웹툰도 그러나요. "(웹툰이)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요. 저도 준비 중입니다. 허영만이라는 타이틀은 빼고, 다른 필명으로 연재해보고 싶어요. 서너 달 정도는 연재할 수 있는 웹툰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요즘의 큰 매체에서는 '이렇게 그려선 안 됩니다' 하고 딱지 놓을 것 같아요. 그림 혼자 해야죠. 얼마 전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어요."

허영만은 5월이면 각급 사회단체들이 '유해 콘텐츠'라며 '만화 화형식'을 치르던 시절 데뷔했다. 기록 없는 창작

으로 대본소(주요 스토리라인과 장면을 메인 작가가, 나머지는 제작자들이 채우는 문하생 시스템)부터 만화잡지, 웹툰 시대까지 경험했다. 고바우만화상(2007), 대한민국 국회대상 만화애니 부문(2008), 보관문화훈장(2022)을 받았다. 스스로 그린 부고에 이렇게 적었다. "허영만 선생이 작업 도중 숨졌다. 향년 107세. 타살 흔적은 없고 코피가 1cm 정도 났을 뿐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한 모습이었다. 만화의 만화를 위한 만화에 의한 인생이었다."

-어떤 작가로 남고 싶으세요. "암으로 돌아가신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나는 작가로 남고 싶다. 책상 위에서 글 쓰다가 죽고 싶다'고 쓰신 글 좋아합니다. 저도 화판 위에서 죽고 싶습니다. 묘비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저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위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이집 저집 싸울 수 있어요. '그럼 난 제일 위에서 농사지어야겠다' 생각하거든요. 또 지금의 웹툰 작가들이 종이 작가를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생각에도 '아, 이런 작가가 있었다' 하면 바랄 게 없겠다."

내년엔 고향 여수에 허영만 만화기념관이 개관한다. 권근영 기자

베테랑 주부 황정민, 명사수 형사 엄정아의 반전 매력

9일 공개 넷플릭스 신작 '크로스' 첩보 액션에 로맨스·코미디 버무려 두 배우 '생활형 부부 연기' 돋보여 전 사격 국가대표 미션(엄정아)은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최다 검거 실적을 자랑하는 에이스다. 그의 남편 강무(황정민)는 바쁜 아내 대신 집안 살림은 물론 미션의 동료 형사들 입맛까지 살뜰히 챙기는 베테랑 주부다. 9일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개국에서 공개되는 영화 '크로스'(감독 이명훈)는 배우 황정민·엄정아의 반전 성 역할이 눈에 띄는 첩보 액션 영화다. 영화에선 황정민의 일상 외조 연기가 맛깔나게 그려진다. 사격은 물론, 전기충격기·맨주먹을 무기 삼아 거구의 조폭들을 처리하는 엄정아의 악바리 '악어 형사' 캐릭터도 실감난다.

5일 서울 장충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크로스'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

우 황정민은 "엄정아의 선함, 동료들 챙기는 따뜻한 에너지가 있어 행복하게 찍었다"고 말했다. 엄정아는 "미션은 아시안게임 사격 은메달리스트 출신"이라면서 "2000년대 초반 형사 역할로 사격 연습을 엄청 한 게 도움이 됐다"고 했다.

중년의 권태기를 맞은 미션과 달리 강무는 아내밖에 모르는 팔불출이다. 평화롭던 일상은 강무가 요원 시절 후배 희주(전혜진)와 만나는 걸 우연히 본 강력반 형사들이 외도라고 오해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미션이 맡은 의문의 연쇄 사망·실종 사건과 가족에게도 과거를 숨겨온 강무와 희주의 비밀 작전, 두 사람에 대한 강력반 형사들의 뒷조사까지 세 가지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삐걱대며 맞물린다.

후반부 진상이 밝혀지는 방식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코미디와 액



영화 '크로스'는 권태기 중년 부부의 로맨틱 코미디에 첩보 액션을 버무린 오락영화다. 주연 배우 황정민(왼쪽)·엄정아가 장르적 재미를 살린 생활 연기를 펼쳤다. [사진 넷플릭스]

션의 타율은 높은 편이다. 뒤늦게 서로의 진면목을 알게 된 부부가 서로를 옹호하며 2인무처럼 펼치는 총격전은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가 킬러 부부로 분한 할리우드 액션 영화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2005)를 연상시킨다. 분노 수거차를 동원한 색다른 차량

추격전 등 액션 스케일 못지않게, 중년 부부 로맨틱 코미디의 재미도 손색없다. 전혜진, 정만식 등 조연 배우들의 연기도 탄탄하다.

'크로스'로 상업영화에 데뷔한 이명훈 감독은 이날 제작보고회에서 "하나도 안 맞던 부부가 하나가 되는 영화

다. 둘이 어긋나는 지점에서 코미디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이 '연애는 서로 마주 보는 것이고, 결혼은 같은 곳을 보며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곳을 보며 걸어가면 언제 마주 보나'란 의문이 들었다"면서 "의문에서 시작한 호기심을 시나리오로 해소해보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실제 결혼 20년 차, 18년 차인 황정민·엄정아의 생활형 부부 연기도 백미다. 최근 황정민은 엄정아와 출연한 tvN 예능 '언니네 산지직송'에서 로맨틱 테스트적인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 엄정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부부가 어떤 지점에서 '크로스' 되는지 찾으면서 따라가 보면 재밌을 것"이라 말했다. 이 감독은 "엄정아는 사격선수 설정답게 집중력이 좋아 촬영 테이크를 두 번 간 적이 없다. '웨더레이크의 여신'이라 불렀다"고 했고, 황정민에 대해선 "늘 솔선수범하고 색다른 아이디어를 주는 '황반장'이었다"고 평했다.

나원정 기자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Healthy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상노스프링 푸드 위민 센터(Star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챔플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아름(H+mart)과 챔플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사진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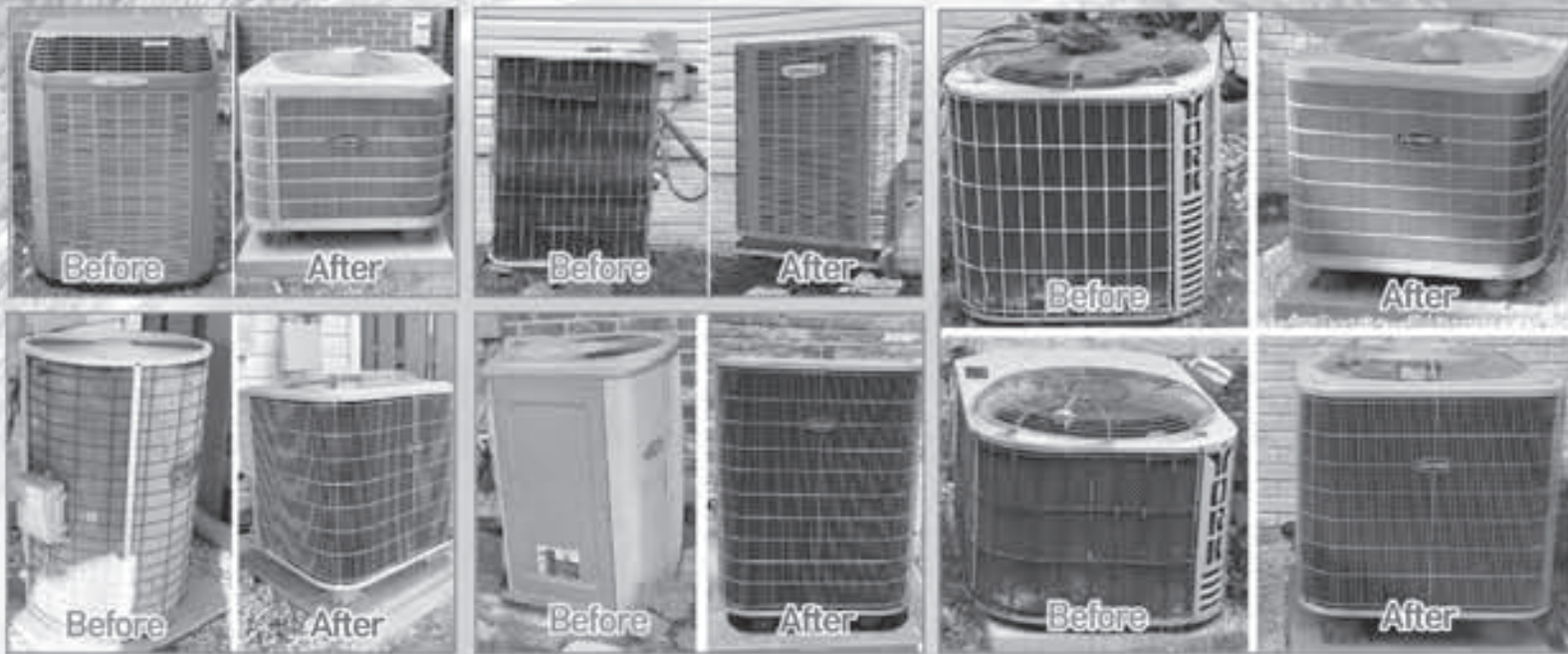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8월
구
인
광
고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뉴욕 광어낚시 동우회 회원 모집

마감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

주말 금요일 밤 Frederick(MD) 270, 80 교차로 E. EXXON GAS STATIONS에서 3명 이상 모여서 출발.

토요일 아침 뉴욕에 도착해서 Seo Queen VII Boats 7시 보트 출발, 차량, 낚시대 완비

202.553.8551

롯데플라자 스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틸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 풀타임/파트타임
- * 영어/컴퓨터 사용
-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라이센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일보 애독자 분들께 알립니다. 7월부터 생활안내 색선 출판고가 1개월 \$20 유로 광고로 전환을 알립니다. 기존과 신규 일반광고는 계속해서 무료로 출판고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생활안내 광고를 애용해 주신 분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원과 관심, 지속적인 이용 부탁드립니다.

▶단체 광고 문의 접수 받습니다.
▶자세한문의: 703-281-9660 또는 kdclass2018@gmail.com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릴랜드 지역

직원 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방문세일즈 경험자, 경력자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332-2101(문자요망)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틀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인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병원/한방/덴탈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라빙/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정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콧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노인분들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픽업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오토바디기술자구함! ▶240-246-4477

차정비

엘리콧시티자동차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매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아류델말 샵펜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방렌트

메릴랜드 콜롬비아싱글룸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대학가까운 495와 95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룸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 아름 메트로근처싱글룸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싱글룸,큰방,욕실,유포,인터넷,가구,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8-2738

Ellicott City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세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출입문별도. 부엌,욕실,거실등,저먼타운 메릴랜드(롯데마켓 5분거리)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크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엄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버지니아 지역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심원서 회계법인에서 일할 회계직원 구합니다.

(1)Manager/5-7yrs experience. CPA Required. (2)Sr. Accountant /3-5yrs experience. (3)Admin-Excel, Data Entry and Bilingual skills

Compensation: Salary + Benefits msim@michaelsimcpa.com

애난데일.시원한 사무실서 파.풀타임 근무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광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없어도 Training 하여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자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탑 여행사바스타우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마켓 본사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자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공인회계사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한,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로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첸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저렴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경력자환영, 컴퓨터/영어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메니저 구함-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작'을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정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com
HomeAdvisor
Best Home Improvement Contractor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 ↔ 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트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a.edu (213)381-3710

Marla: I really want to have a party.
말라: 난 정말 파티를 열고 싶어.
Karl: I don't feel up to it tonight.
칼: 난 오늘 저녁엔 영 별론데.
Marla: I didn't mean tonight, I want a real party.
말라: 오늘 저녁 얘기가 아니고, 진짜 파티를 얘기하는 거야.
Karl: You don't mean a couple of friends over you mean a big party.
칼: 친구 몇 명 부르자는 얘기가 아니고 큰 파티를 얘기

하는 거군.
Marla: Now you're catching on.
말라: 이제야 밑귀가 통하네.
Karl: We'll never have enough time to pull it off.
칼: 좀처럼 제대로 해낼 시간이 나지 않을 거야.
Marla: We'll have to find the time.
말라: 시간을 내야지.
Karl: I think that you're telling me that I don't have a choice.
칼: 나한테는 선택권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군.
Marla: You catch on very quickly.
말라: 이해가 빠르시네요.
Karl: Okay just tell me what you want me to do.
칼: 그래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는지만 얘기해 줘.

기억할만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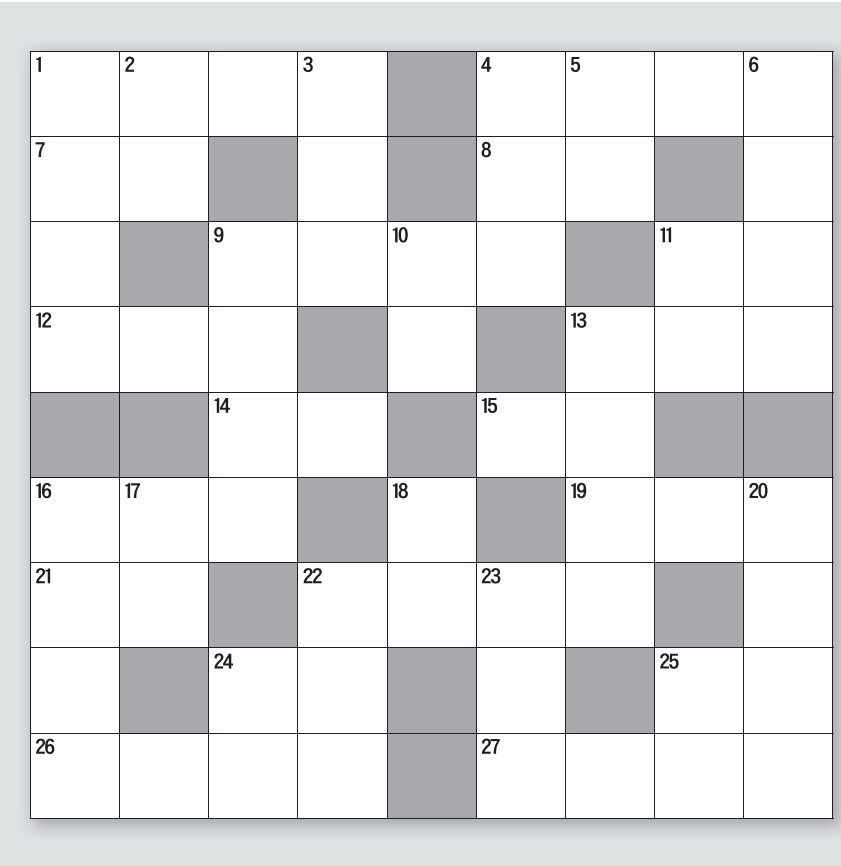
▶ feel up to (something): ~할 기분이 나다 하고 싶다
"I am feeling up to a long trip somewhere."
(어디 먼 데로 여행가고 싶다.)

pull (something) off; ~를 (성공적으로) 해낸다

(Karl and his wife Marla are having a discussion...)
(칼과 그 아내 말라가 의논하고 있다...)

▶ to catch on: 서서히 알아듣다 깨닫다
"She catches on faster than the other students."
(그녀는 다른 학생들보다 이해가 빠릅니다.)
▶ find the time: 시간을 내다
"He always finds time to play golf." (그 사람은 골프를 위해서라면 항상 시간을 냅니다.)

날말퀴즈



가로열쇠

(1) 현명한 물음에 대한 어리석은 대답 (4) 맨손과 맨주먹.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 그는 ~으로 외국에 나가 큰돈을 모았다. □□□□ (7) 어머니와 아들 (8) 두 다리를 꿰는 가랑이가 있는 아랫도리 옷 (9) 술로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룸. 호사스러운 술잔치 (11) 우편물을 받을 단체의 이름 다음에 쓰는 높임말. 중앙일보 편집국 ~ (12) 약의 조제 방법을 적은 종이 (13) 곡식이나 눈 따위를 한곳으로 밀어 모으는 데 쓰는 기구 (14) 다른 사람에게 소속되어 그 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 최 사장은 ~ 직원을 진정으로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15) 겨우내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 (16) 문틀에 달아 놓은 손잡이 (19) 세계 최초의 돌격용 철갑선 (21) 적의 창, 칼, 화살 따위를 막아 내는 무기 (22) 한데에 수북이 쌓아 둔 곡식 더미 (24) 쓸데없이 말수가 많음 (25) 예전에, 머리에 쓰던 관. 벼슬이나 직위 (26) 허술한 대로 위를 가리게 되어 있는 것. 우리는 지방 달을 ~라도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 (27) 그 수를 알 수 없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매우 많음

세로열쇠

(1) 인자하고 어진 어머니이자 착하고 좋은 아내. 신사임당은 ~의 전형이다 (2) 말을 눈으로 읽을 수 있게 나타낸 것. ~ 메시지 (3) 문제에 대한 답을 쓰도록 마련된 종이 (4) 나중에 참고하기 위하여 글로 간단하게 적어 둔 (5) 수입과 지출. 거래 관계에서 얻는 이익. ~ 맞는 장사 (6) 땅을 팔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움. 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 어떤 일에 실패한 뒤 힘을 길러 다시 그 일을 시작함. □토□□ (9) 끼니 외에 떡이나 과일, 과자 따위의 균음식을 먹음 (10) 쇠고기를 얇게 저미어 양념하여 말린 것 (11) 집으로 돌아감 (13) 네 활개를 벌리고 뒤로 벌렁 나자빠짐. 빙판길에서 ~로 넘어졌다 (16) 종이, 붓, 먹, 벼루의 네 가지 문방구 (17) 물건을 달아 올리거나 내리는 줄을 걸치는 도르래나 고리 (18) 연애의 경쟁자 (20) 야구에서, 1회부터 출전하여 던지는 투수 (22) 목격하는 광물이 많이 묻혀 있는 광맥. 필요한 물건이나 이익이 많이 나오는 곳 (23) 집안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적는 장부 (24) 거두어 감. 분리 ~ (25) 골록골록 기침이나 조

스도쿠

6		4	2		5	3		
1			7	8		2		
8					6		4	1
				2		8	9	5
			7	6				3
		5					2	
3				4			7	
			9				6	
	9	1				5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4	3	5	2	9	8	1	6	7
2	9	1	3	7	6	8	4	5
8	7	6	1	4	5	9	2	3
7	2	9	8	3	4	5	1	6
3	1	4	6	5	9	7	8	2
5	9	8	7	2	1	3	6	4
1	4	7	9	6	3	2	5	8
9	5	2	4	8	7	6	3	1
6	8	3	5	1	2	4	7	9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영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영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 / month year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애틀랜타 기타 지역

구인 구인

일본식당 구인
*데빵 슈프 0명
*스시 슈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강(거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달리버리/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환영, 숙소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민족을
연결할 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이민생활의 나침반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급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게재
All about US Life!

RENT
렌트
부동산

미국 라이프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us.srotech.com
charcoal cedar 친환경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형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효유

1-213-210-9720/papaaaa.com

서류 대행업소 매매

LA 한인타운 최고의
이민, 법률 서류 대행 사무실

- 가격 \$36만
- 주5일 (9-5시)
- 월순의 \$1만5천
- 30년 운영 은퇴

(213)712-429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매달리치라 살매
최종상당
Up to 40%
최저세입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입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입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8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5분만에
100마일
충전가능
= 300kw

한인최초 미국 굴지의
EV충전소 제조 회사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소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 할수있습니다

문의: Jay Park Jaepark2000@yahoo.com
213-605-1122, 714-822-7150
Sales Agent 모집중 (선착순 인원제한)
개인땅이나 건물주 연락 바랍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새 상가나 새 아파트에는 EV 충전소가 설치 되어야 합니다

EV 충전소 설치의 장점

1. 내땅에서 전기 충전소 설치하면 24시간 수입 창출
2. 트래픽이 많아지고 기다리는 동안 수입 창출 3
3.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높은 Grant 를 받을 확률이 좋다
4. FBS 를 통해 설치 하면 공사비가 타 회사 대비 70% 절약 할수있다

12541 E. Carson St., Hawaiian Gardens, CA 90716

"상업용"

"Level 2"

IRS 세금문제 전문

State 세금 문제 해결

10년이상의 세금문제 전문 경력

CLIENTS	CASES	TAX OWED	SETTLED
B. KIM	IRS APPEALS	\$46,292	\$2,701
B. BROKERING	IRS	\$37,524	\$1,000
Y. BUS & TRUCKING	IRS	\$1,088,081	\$2,000
K. FASHION	IRS	\$3,864,169	\$1,850
DOUGLAS B.	IRS	\$25,976	\$1,900
J. PAINTING	IRS	\$184,480	\$2,000
A. CLEANERS	IRS	\$133,044	\$27,000

CLIENTS	CASES	TAX OWED	SETTLED
B. CONSTRUCTION	IRS 1099-G	\$674,699	\$0
Y.I. KIM	IRS CAP GAIN	\$21,952	\$1,500
D.K. SUSHI	SALES TAX AUDIT	\$ -	Finalized
DAVID Y.	SALES TAX	\$22,949	\$2,000
MARY L.	FTB	\$40,072	\$3,000
S. PAINTING	CORPORATION SUSPENSION	Corporation Suspended	Revived
J. JONES	GARNISHMENT	\$55,827	Released
L. CLEANERS	IRS CVL PNL	\$133,043	\$1,118/mo
K. RIM	IRS / STATE	\$171,926	\$2,500
O. SUSHI	ABC LICENSE SUSPENSION	License Suspension	Reinstated
D. DEAN	IRS 1040	\$25,976	\$2,000
Y.S. SONG	STATE LIEN	Lien	Released
S. BBQ	SALES TAX	\$18,413	\$500

**여권/Passport
Income Tax
State Tax
Payroll Tax**

Top
Google
Rating
★★★★

1440 N. Harbor Blvd.,
Suite 706, Fullerton, CA 92835 KC Choi 공인세무사

562.943.1456 미 전역 가능 TAX HELP TEAM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